[UCI]I804:24011-200000232989

2006년 8월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논문

<숙향전>의 서사구조와 지향의식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국 진 희

<숙향전>의 서사구조와 지향의식 연구

A Study on the Narrative Structure and Inclination Consciousness of <Suk Hyang Jeon>

*2006*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국 진 희

<숙향전>의 서사구조와 지향의식 연구

지도교수 김 수 중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국어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6*년 *4*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 어 교 육 전 공

국 진 희

국진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정 주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상 원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수 중 인

*2006*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Ⅰ. 서론 ·····1

1. 연구목적 및 방향 ·····1
2. 연구사 검토 ·····4

Ⅱ. 天定原理를 중심으로 한 서사구조 ·····9

1. 순차단락의 형성원리 ·····9
2. 주인공 중심의 서사구조 ·····13
3. 구조의 중심 이동과 天定原理의 실현 ·····25

Ⅲ. 施惠-報恩의 구조와 세계인식 ·····30

1. 施惠-報恩의 諸樣相 ·····30
   (1) 시혜-보은의 상호 작용 ·····31
   (2) 보은의 기능 소재 ·····36
   (3) 원조자와 주인공 간의 시혜-보은 ·····39
2. 施惠-報恩의 구조에 나타난 세계인식 ·····42

Ⅳ. <숙향전>의 지향의식 ·····46

1. 天定原理의 실현으로서의 숙명론적 지향 ·····46
2. 서사적 특성으로서의 초월주의적 지향 ·····49
   (1) 지상-천상계의 경계 해체 ·····50
   (2) 전생-현세간의 경계 해체 ·····54

(3) 사람-동물간의 경계 해체 ·····60

Ⅴ. 결론 ·····64

참고문헌 ·····68

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Structure and Inclination Consciousness of <Suk Hyang Jeon>

Jin-hee Kook

Advisor : Prof. Su-jung Kim, Ph.D.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Suk Hyang Jeon> is the story that solves hardship which was occured until Suk-Hyang met Lee Seon and the discord which is caused by in marriage, finally they return toward the Heaven. Because of this story in the <Suk Hyang Jeon>, the study of pre-scholars emphasized that the <Suk Hyang Jeon> is loved story very often. And yet, it is not only to talk about love. In the <Suk Hyang Jeon>, while karma from heaven is emphasized, the difficulties until karma is accomplished are also important part.

The story is formed by Gyun Wang's prophecy which is set up in the beginning of the story. Mr. Wang exactly predicts the course of the main characters' life, and his prediction comes true without any little difference in this text. However, his prophecy is not a just private prediction but a Heaven's will. It can be confirmed not only the life of a hero but also the

others. The meaning of the story through is that we human being have to follow the Heaven's will in our life. Therefor, <Suk Hyang Jeon> is based on fatalism. But we can't pass over lightly that fatalism of <Suk Hyang Jeon> is not a just passive apprehension of the truth but affirmative reasonableness or the underlying principle of life.

Also the content which people give animals some favor and animals give people back the favor is spread out minutely in <Suk Hyang Jeon>. This favor is set before being born of Suk Hyang it forms it goes the structure of the work continuously. This is because the thought, which animal and human, nature and human cannot be separated, and they are essentially same, is reflected. So <Suk Hyang Jeon> reflects the organic transcendental world view that the heaven and the earth, consciousness and unconsciousness, dream and reality, god and human are not separable from each other but are originally the same.

Such a world perspective difference from the one that views the worlds as physical phenomena or from the one that emphasizes dear dichotomy. It could be an alternative to the current perspective of narrow-minded world view.

The world point of view in <Suk Hyang Jeon> is fatalistic and transcendental, and it has been succeeded to our mind and consciousness. This world view is often found in our classical novels. The world point of view in <Suk Hyang Jeon> presents us with guiding light for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novels.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방향

<숙향전>은 그 창작 연대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으나 비교적 이른 시기의 고대소설로 알려져 있고, 구성이나 내용 등 소설적 성취 면에서 작품성이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숙향전>은 고전문학의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숙향전>은 적강한 남녀 주인공의 만남과 결합까지의 고난, 그리고 이들의 결합으로 야기된 갈등과 그 해결 과정이 사건 전개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숙향전>을 애정소설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는데,[1] 유형적 연구 이전에 사건 전개의 구조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리 고전소설, 특히 한 인간의 일생을 다룬 전기체 소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직되어 가는 특징을 지닌다. <숙향전> 역시 주인공 숙향과 이선의 일생이 시간의 연속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로 서사가 진행되며 주제를 구축하고 있다.

<숙향전>의 전반부는 숙향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면서 '발생-해결'이라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사건은 주로 천상에서 이미 정해진 다섯 가지 厄에서 비롯되며, 하늘에서 정한 하나의 厄이 나타나면 그 厄을 극복하는 삽화로 진행된다. 즉, 주인공의 고행을 근간으로 사건을 전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厄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발생-해결'의 구조는 천상에서 정한 마지막 厄 앞에서 지연된다. 그리고 그 지연의 순간에 바로 이선이 문면에 나타난다. 더구나 숙향과 이선이 정식으로 결혼을 인정받은 뒤로는 서술의 초점이 주로 이선에게 모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선의 등장으로 인한 구조의 변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또한 숙향의 마지막 厄이 해결된 후에 이

1) 이상구,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6,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선은 황태후의 병을 구하기 위해 선약 탐험을 하게 된다. 이것은 혼사와 부모와의 재회라는 고소설의 공식구인 '행복한 결말'을 성취한 두 주인공에게 군더더기 같은 삽화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숙향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던 '발생-해결' 구조가 이선의 등장으로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지연의 원인이 되는 이선의 선약 탐험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편 적강소설에서는 적강한 인물들이 천상으로의 복귀를 위해서 행하는 배우자 찾기가 중요하다. <숙향전>에서도 숙향이 겪는 고행은 이미 天上界에서 정해진 경로를 가는 것이지만 텍스트 현실로 나타난 그녀의 고행은 바로 부모를 찾는 것과 배우자를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숙향의 탐구가 부모를 찾는 것과 배우자를 찾는 것 중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선행 연구마다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숙향전>에서는 적강한 주인공의 배우자 탐색이 끝난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부모 찾기가 시작된다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2] 이런 점에서 본고는 天定原理에 따른 삶의 과정을 추적하는 가운데 '배우자 찾기'와 '부모 찾기'라는 두 탐색의 개별적 의미들을 밝혀보고자 한다.

<숙향전>의 또 다른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발생-해결'의 구조에서 사건 해결을 위해 施惠-報恩의 짜임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施惠와 報恩의 과정은 작품 서두에서부터 설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설정이 작품의 대단원까지 일관된 구조를 형성하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러한 施惠-報恩의 구조 역시 <숙향전>의 작품적 성격을 고찰하는 데 있어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 여겨진다.

본고는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 <숙향전>의 구조를 살핀 다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구조를 갖게 된 이유, 즉 그러한 구조가 만들어내는 <숙향전>의 의미와 그것의 문학적 기능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서술 방향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天定原理를 중심으로 한 <숙향전>의 서사구조에 대해서 상론

2) 채희윤, 「숙향전 연구」, 『한국 서사문학의 통사적 고찰』, 푸른사상사, 2002, p.173.

하겠다. 이를 위해 1절에서는 먼저 <숙향전> 전체의 단락을 제시하고, 이 순차단락이 天定原理의 지배를 받으며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밝히겠다. 2절에서는 제시된 순차단락을 바탕으로 하여 <숙향전>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서사구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天定原理가 인물들의 삶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 작품 내부적 성격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3절에서는 구조의 중심이 숙향에서 이선으로 이동해 가는 것과 이선의 삶에서 天定原理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1절에서 <숙향전>의 또 다른 구조적 특징으로 드러나는 施惠-報恩 구조의 전개 양상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절에서는 <숙향전> 구조에 나타난 세계인식에 대해서 상론하고자 한다. 서두에서부터 설정된 施惠-報恩의 구조적 현상이 작품이 종결될 때까지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러한 설정에는 작가의 메시지가 강하게 표명되어 있다고 본다.

Ⅳ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핀 天定原理에 따른 서사구조와 Ⅲ장에서 살핀 施惠-報恩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숙향전>의 지향의식을 검토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숙향전>의 天定原理에 따른 삶의 과정을 宿命論으로 해석하고자 하였고, 2절에서는 서사적 특성으로서의 상호 왕래성을 연구하여 시공과 관념을 초월하는 超越主義的 美學을 찾아, <숙향전>의 주제적이고 형태적인 특성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본다.

<숙향전>의 이본은 경판본계열, 심씨본계열, 한문본이나 한문현토본 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본들 중에서 善本이나 先本을 착정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사실상 적잖게 이뤄졌고, <숙향전>의 경우 이본 전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이본 중 善本을 하나 선택해서 논의하더라도 <숙향전>의 작품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것은 이본 간의 편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그 성격상 梨大本[3]을 텍스트로 삼는다. 梨大本은 현존

3) <슉향젼 ᄉᆞᆼ하>, 필사본, 필사 연대 미상,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 『한국고대소설총서』, 1958.

하는 필사본 가운데 몇 안 되는 완결본의 하나인 善本이며, 민중들이 읽기 쉬운 국문체로 되어 있고, 특히 <숙향전> 이본 중에서 가장 古本으로 추정되는 沈氏本과 흡사하므로 내용 변형이 거의 없는 原典을 접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연구의 보완과 논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梨大本 외에도 다른 이본들을 원용하여 참고하려고 한다.

2. 연구사 검토

<숙향전>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 작품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김태준의 『조선소설사』[4]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주왕산의 『조선고대소설사』[5], 김기동의 『한국고전소설개론』[6]에서 계속되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이 작품을 "幻夢的 非現實的 부분을 제외한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通俗的인 平凡한 작품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식의 김태준의 성급한 평가를 비판 없이 습용했다.[7]

<숙향전>의 본질적인 성격을 논의하기 시작한 선두 주자는 이상택[8]이다. 그는 <숙향전>의 인물은 天上의 主宰者에 의해 주어진 '天定한 定數'를 일방적으로 따르기만 할 뿐, 어떠한 個我的인 의도나 자발적인 갈등은 보여주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숙향전>을 神聖性에 기반을 두고 있는 신성소설의 대표 작품으로 보았다.

이후 연구들은 초창기 연구자들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 옹호하거나 반론적인 성격의 논의를 펼쳐가면서 <숙향전>에 대한 연구는 심화되어 왔다.

---

4)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연사, 1939.
5)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6) 김기동, 『한국고전소설개론』, 대창문화사, 1956.
7) 민경록, 「숙향전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 p.2 재인용.
8) 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과정 시론」, 『고전문학연구』1,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1.

특히 성현경[9]의 논의를 주목하여 보면, 그는 <숙향전>은 적강 화소 · 기억 상실 화소 · 탐색 화소 · 정체성 화소 · 보은 화소 · 변신 화소 등 여러 화소들을 수용하고 있는 소설로서, 적강형 소설 · 탐색형 소설 · 보은형 소설 · 변신 소설 등의 원형이자 전형이란 면에서 소설사적인 의의를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그간의 성과는 <숙향전> 원작의 창작시기 연구, 이본 연구, 유형적 분류, 서사구조 논의, 작품에 반영된 사상적 배경연구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는 연구목적에 따라 <숙향전>의 내부적 성격과 관련된 연구 성과를 중점으로 검토하여 정리해 보았다.

먼저, 서연희[10]는 여성영웅의 一生型이 '男女離合型'으로 변모되었다고 할 때 일생의 어느 부분이 어떻게 전환되어 이행되었는가를 밝히는 기준으로 <숙향전>을 주목하고, <숙향전>의 구조를 형성하는 여러 층위들을 상세히 검토하였다. <숙향전>의 서사구조를 통하여 여성의 일생에서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문제는 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작품도 숙향과 이선의 혼인이 중심이 된다고 하였다.

이상구[11]는 <숙향전>의 전개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의 현실적 성격을 통해 작품의 핵심적 갈등과 그 의미, 그리고 도선적 결구의 작품 내적인 기능과 성격을 고찰하여 <숙향전>의 현실적인 성격을 규명하였다. 즉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은 숙향의 '고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전개를 볼 때, 숙향이 '전쟁고아'에서 '남의 집 시비'로 다시 '술집 기녀'로 전락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전반적인 도선적 결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 개연성이 농후하며, 조선 후기 세태의 사실적 반영과 구체적 묘사 등 사실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보았다.

황패강[12]은 <숙향전>의 주인공과 부차적 인물들이 천상이나 기타 異界에

9) 성현경, 「숙향전 연구」, 『동아연구』2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회, 1993.
10) 서연희, 「숙향전의 서사구조와 의미」, 『서강어문』5, 서강어문학회, 1986.
11) 이상구, 앞의 논문.
12) 황패강, 「숙향전의 구조와 동양적 예정론」, 『고전소설의 이해』, 문학과비평사, 1991.

서 생활하던 인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의 異界생활은 현세생활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현세에서의 운명적인 행동과 선택은 전생의 異界생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작품의 결말도 異界로의 회귀로 귀결됨으로써 은연중에 일종의 '예정론'을 확인하게 된다고 하였다.

양혜란[13]은 <숙향전>에서 '시간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시간의 의미 및 시간의 구조 등 전반적인 시간문제에 착안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소설의 시간구조와 그 특징이 시간의 대립법적 구조, 可逆的 구조, 과거-초월의 순환적 구조로 나타났다고 보고, 그 결과 작가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신화적 시간을 통하여 자기 삶의 확대를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으로 보았다.

한편 조용호[14]는 <숙향전>에 대한 그간의 논의가 대부분 숙향의 일생에 치우쳐져 있었음을 지적하고, 숙향과 이선 모두에게 균등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두 인물을 탐색영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했다. 남녀 주인공이 궁극적인 탐색대상을 천상에서 그들이 가졌던 신성 자아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로 이해하고, <숙향전>을 原型的 자아의 회복을 그린 작품으로 보았다.

김민숙[15]은 서사구조에 나타난 세 혼사담의 서사기능에 대하여 분석한 후, 세 혼사담이 작품에 미치는 영향이 <숙향전>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보았다. 세 혼사담의 형식에는 중매혼, 자유혼, 정략혼의 성격이 있는 바, 혼사 장애의 요인으로 김전 부부는 세대의 단절이라는 장애로 부자관계인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고, 숙향과 이선, 매향은 자신의 의사에 따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수평적 관계의 회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특히 숙향과 이선이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혼을 성취하기 위해 겪는 혼사시련들이 이 작품의 긴장을 더해 주고 있다고 하였다.

---

13) 양혜란, 「숙향전에 나타난 서사기법으로서의 시간문제」, 『우리어문학연구』3, 한국외국어대학교, 1991.
14) 조용호,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7,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15) 김민숙, 「숙향전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2.

차충환[16]은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에서 특히 <숙향전>의 담화 구성상의 특징에 주목하여 그 의미와 기능을 당대의 독자나 청자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였다. <숙향전>의 기본 골격은 서술자나 화자가 숙향의 삶에 관여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시하고, 이를 독자나 청자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확인해 가는 형태로 되어있다는 것과 이야기의 전개 상황에 따라 그 동안까지의 숙향의 삶의 행로가 숙향 자신의 발화로 요약 · 제시되고 그것이 숙향의 고난에 찬 삶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숙향전>의 구조적 특징으로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을 고소설의 통상적인 주제인 권선징악을 환기시켜서 독자들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장홍재[17]는 <숙향전>에 나타난 거북의 보은 설화가 갖고 있는 형태적 특색을 고찰하면서 <숙향전>의 형성 과정을 일정하게 거론하였다. 보은 설화에 대한 논의만으로 <숙향전>의 형성과정을 거론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숙향전>의 근원설화에 대한 고찰로서는 그 의의가 인정된다.

또한 김응환[18]은 <숙향전>에 나타난 도교 사상을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도교적인 환원구조를 이용하여 공간을 설정하고 인간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애정문제를 소재로 하여 이상적인 삶인 입신양명한 후에 신선이 되어 장생불사하는 심경을 그린 작품이라고 결론지었다.

박여범[19]은 <숙향전>의 배경사상은 유 · 불 · 도 사상의 3가지이며 이들 요소가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띠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즉 유교의 충효와 정절관, 불교의 윤회, 전생과 영험사상 그리고 작품 전개에 따른 사건 전체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도선사상의 초현실적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재홍[20]은 <숙향전>이 대중성을 확보하게 된 나름의 미적 특질을 살펴보

16) 차충환,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소설연구』4, 한국고소설학회, 1998.
17) 장홍재, 「숙향전에 나타난 거북의 보은사상」, 『국어국문학』55-57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2.
18) 김응환, 「숙향전의 도교사상적 고찰」,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83.
19) 박여범, 「숙향전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1.
20) 신재홍, 「숙향전의 미적 특질」, 『고소설연구논총』 다곡이수봉박사정년기념, 경인문화사, 1994.

았다. 즉 작품 전반에서 드러나는 선명한 原色的 이미지, 인간적인 神의 형상, 民間思考가 지닌 肉迫性의 문학적 형상화 등을 고려할 때 향유층의 생활 속에 있을 전통적인 무속신앙에 가장 근접한 작품이라 보았다.

박병완[21]은 <숙향전>의 구조를 분석하여 작가의식을 해독하는 일을 과제로 삼아, 작품의 통시적 평면구성과 공시적 대립구조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주역들이 현세에서 혼인한 것은 천정배필의 숙명이며, 분리-고행-귀환으로 반전되는 시련을 극복하고서야 혼인을 완성하게 되는 것은 천상죄에 대한 속죄과정으로 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추출한 숙향전에 반영된 작가의식으로는 태초의 본향인 천상으로의 회귀를 염원하는 초월주의적 세계관이 노정되어 있다고 보았다.

윤경희[22]는 <숙향전>에 나타난 천상계의 기능과 의미를 중점적으로 해석하여 <숙향전>에 투영된 세계관을 살핀 바 있다.

이상으로 그 동안에 이루어진 <숙향전>의 작품의 성격과 의미에 대한 연구 성과 중 주요한 것들을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사를 검토한 바 <숙향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한 연구의 진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품 분석에 있어서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작품 전반에 걸친 전체적인 분석보다는 특정한 영역에 국한하여 그 의미를 분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숙향전>의 서사구조를 검토하고 그 의미를 밝혀내어 <숙향전>의 지향의식과 작품적 성격을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기존 연구들을 보완해 보고자 한다.

---

21) 박병완, 「숙향전의 구조와 작가의식」, 『국어국문학』115, 국어국문학회, 1995.
22) 윤경희, 「이대본 숙향전에 나타난 조명론적 세계관」, 『한국고전연구』창간호,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Ⅱ. 天定原理를 중심으로 한 서사구조

1. 순차단락의 형성원리

<숙향전>은 다수의 고행들이 이본 간에 그 흐름과 구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이루어져 있다. 다음의 순차 단락은 <숙향전> 이본 중 완결본의 공통 단락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작품의 의미 해독에 주요한 기능을 행사한다.[23] 따라서 연구의 편의성을 위해 <숙향전>의 이야기 선을 쫓아서 전체의 단락을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김전은 송나라 운수선생의 아들로서 인물됨이 출중하다.
② 김전과 거북이 서로의 생명을 구해주다.
③ 김전이 장회의 딸과 혼인하여 숙향을 낳다.
④ 왕균이 숙향의 來頭事를 예언하다.
⑤ 숙향이 전란을 만나 부모와 헤어지다.
⑥ 반야산에서 도적들이 숙향을 죽이려고 하다.
⑦ 도적 · 異物들이 숙향을 구해주다.
⑧ 숙향이 명사계에 출입하고, 후토부인이 숙향의 來頭事를 말해주다.
⑨ 숙향이 장승상댁에서 10년을 의탁하다.
⑩ 숙향이 사향의 모해로 장승상댁에서 쫓겨나다.
⑪ 숙향이 표진강에 투신하고 龍女와 仙女가 구해주다.
⑫ 숙향이 蘆田에서 화재를 만났으나 화덕진군이 구해주다.
⑬ 마고할미를 만나 이화정에서 살다.
⑭ 숙향이 꿈을 통해 天上을 경험하고 이를 繡놓아 팔다.
⑮ 이상서부부가 이선을 낳다.
⑯ 이선이 꿈을 통해 天上을 경험하고, 숙향이 만든 刺繡를 얻다.

---

23) 김진영 · 차충환, 「숙향전의 구조와 세계관」, 『숙향전』, 민속원, 2001, pp.19-20.

⑰ 이선이 숙향을 찾아다니다.

⑱ 이선과 숙향이 혼인하다.

⑲ 이상서가 숙향을 죽이려고 하다.

⑳ 숙향이 옥중에서 풀려나고, 마고할미가 사라지다.

㉑ 숙향이 마고할미의 분묘를 찾아가다.

㉒ 숙향이 이상서부부를 만나 며느리로 인정받다.

㉓ 이선이 及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숙향과 재회하다.

㉔ 양왕이 婚事 이행을 재촉하고, 이선이 형주자사가 되어 발행하다.

㉕ 숙향이 화덕진군, 표진강 용왕에 祭를 올리고 황새 등에게 먹이를 줘 報恩의 뜻을 행하다.

㉖ 숙향이 장승상 부부와 재회하다.

㉗ 김전이 표진강 용왕으로부터 숙향의 행적과 앞으로 만날 일을 전해 듣다.

㉘ 숙향이 부모와 재회하다.

㉙ 매향이 이선과의 혼인을 고집하다.

㉚ 황제와 숙향이 이선에게 매향을 취하라고 하나, 이선이 거절하다.

㉛ 황태후가 병이 나고, 이선이 仙藥을 구해오다.

㉜ 이선이 황태후를 되살리고 이어 매향을 둘째 부인으로 취하다.

㉝ 도적에 은혜를 갚다.

㉞ 이선, 숙향, 매향이 生子生女하면서 和福을 누리다가 昇天하다.

<숙향전>은 작품 초반에 설정된 天定原理가 <숙향전>의 구조를 형성하는 원리로 작용하면서 인물들의 삶을 전개시키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天定原理는 天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숙향전>은 이 天命이 작품 전체의 기본 골격과 지향을 제어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24]

숙향의 삶에 대한 天定原理는 위에서 제시한 단락 ④의 왕균의 예언에서 우선적으로 표명되어 있다.

왕균니 이르되 “이 이긔난 인간 ᄉᆞ람 아니라 월궁항아의 졍긔를 타 낫ᄉᆞ오니

24) 김진영 · 차충환, 앞의 책, p.20.

전싱죄를 이싱의 와 다 갑푼후의 반다시 죠혼 시절을 볼거시니 션분은 극히 험ᄒᆞ나 후분은 죠흐리라" ᄒᆞ거날 긤젼 왈 "후분 션악은 아지 못ᄒᆞ나 션분은 우리 아직 의식을 그리지 아니ᄒᆞ니 엇지 고승할 일리 잇스리요" 왕균니 크게 웃고왈 "ᄉᆞ람의 팔ᄌᆞ난 아지 못ᄒᆞ나니 ᄂᆡ 비록 ᄌᆡ죠 업ᄉᆞ오나 ᄋᆡ긔 ᄉᆞ쥬와 ᄉᆞ을 보오니 오세에 부모를 이별ᄒᆞ고 정쳐업시 단니다가 십오세 당ᄒᆞ여 다섯 번 죽을 ᄋᆡ을 지니고 십칠세의 부인을 봉ᄒᆞ고 니십의 부모를 만나 ᄐᆡ평영화로 지ᄂᆡ다가 칠십이 되오면 도로 천ᄉᆞ으로 올나 갈 팔ᄌᆞ니다" (이대본, pp.7-8)

위의 내용은 相者 왕균이 숙향의 칠십 평생 중 주요한 삶을 예언한 부분으로, 예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총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그것은 5세에 부모와 헤어진다는 것, 15세까지 다섯 번의 죽을 厄을 겪는다는 것, 17세에 부인에 封해진다는 것, 20세에 부모와 재회한다는 것, 70세에 昇天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왕균의 예언은 숙향에 대한 단순한 운명의 예측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天命과 관련된다는 점이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 점은 단락 ⑧의 후토부인의 말에서도 확인되지만, 단락 ⑪의 仙女와 龍女의 말을 보면 분명히 확인된다. 숙향이 사향의 모해로 장승상댁에서 쫓겨나와 표진강에 투신했을 때, 표진강 용녀가 숙향을 구해주면서 하는 발화 속에는 위의 왕균의 예언이 단지 숙향의 相과 四柱만을 통해서 점친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니라 天命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25] 표진강 용녀의 발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제 용왕니 옥경의 올나가 죠회ᄒᆞ고 믈너올 ᄯᆡ예 옥제 말샴를 듯ᄌᆞ온즉 월궁쇼애 천샹의 득죄ᄒᆞ여 인간의 ᄂᆡ치이ᄆᆡ 남양 ᄯᆞ 김젼의 집으로 귀향보ᄂᆡ여 ᄯᆞ니 반야산의 가 도적의 죽을 ᄋᆡ를 보고 후토부인게 가 쥭을 번ᄒᆞ고 ᄯᆞ 포진 믈가의 가 쥭을 번ᄒᆞ고 노젼의 가 화덕진군게 가 죽을 번ᄒᆞ고 낙양 옥중의 가

25) 성현경은 왕균의 예언을 단순히 관상쟁이의 혜안과 신통력에 의한 결과로 파악하면서 그것을 천정원리와 연결시키지는 않았다.(성현경, 「숙향전론」,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5, p.173 참조.) 하지만 다음의 표진강 용녀의 발화 내용 등을 통해 숙향의 삶이 천명과 관련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죽을 번ᄒᆞ고 반년 고힝를 ᄒᆞ다가 ᄐᆡ을션군를 다시 만나 아들 형제예 쌀 ᄒᆞ나 나흔 후 귀히 되리라 ᄒᆞ시기로" (정문연A본, p.34)

왕균의 예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숙향은 5세에 부모와 헤어져 15세가 되기까지 다섯 번의 죽을 厄을 경험하는데 위의 인용문에는 그 다섯 번의 죽을 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숙향의 厄이 玉皇上帝에 의해 마련된 것이라는 점이다. 위의 인용문의 최종적인 발화자는 용녀인데, 용녀의 발화 내용은 그의 부친인 龍王에게서 나온 것이고, 용왕은 그것을 옥황상제에게서 하달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용왕에게 하달한 옥황상제의 傳言을 용녀가 최종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다.[26] 따라서 숙향에 대한 왕균의 예언은 단순한 운명의 예측이 아닌 이미 하늘에서 마련한 天命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의 용녀의 발화 내용과 왕균의 예언에 나타나 있는 숙향의 삶의 과정이 <숙향전>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관철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선은 물론 작품에 등장하는 여타의 천상적 존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들의 지상적 삶 역시 玉皇上帝의 의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天定原理의 작용 양상에 따른 <숙향전>의 서사구조는 숙향의 5개의 厄을 중심으로 하나의 발전 축이 그려지고 이선의 등장으로 마지막까지의 축이 나타난다. 즉 처음은 숙향의 가문과 출생 내력으로 시작하여 여러 가지 天定의 禍厄을 몸소 치르고, 그 가운데 이선의 등장이 있고, 두 축이 병렬적으로 계속되어지다 모아지고, 그 이후에는 서사의 주류는 남성 주인공인 이선을 중심으로 종말까지 가게 된다. 즉, 숙향 → 숙향과 이선 → 이선의 방향으로 텍스트는 종결을 향해 직진하고 있다.

또한 서사의 직진성과 다르게 <숙향전>의 내용 구조는 전통적인 순환 형태를 보여준다. 숙향이 문제에 봉착하고 그것에서 벗어나 평형을 찾는, 즉 고

26) 김진영 · 차충환, 앞의 책, p.22.

난이 발생하고 일을 해결하는 데에는 반복되는 圓環의 구조가 있다. 그것은 바로 꿈과 신이한 현상으로 나타나서 서사적 현재를 단절시키는 공간의 반복적 현시이다.[27] 즉, 꿈과 초현실적인 세계로의 자유로운 왕래를 통해 구조적 이야기를 완성시켜 간다고 볼 수 있다.[28]

따라서 <숙향전>의 남녀 주인공의 삶의 과정을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해 가는 가운데 天定原理가 그들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주인공 중심의 서사구조

1절에서 살핀 왕균의 예언과 용녀의 발화 인용문의 내용 중에서 주인공 숙향의 삶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종합해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29]

(a) 5세에 부모와 헤어지다.
(b) 반야산에서 도적을 만나 죽을 厄을 겪다. (첫째 厄)
(c) 명사계에 출입하여 죽을 厄을 겪다. (둘째 厄)
(d) 표진물에 빠져 죽을 厄을 겪다. (셋째 厄)
(e) 蘆田에서 화재를 만나 죽을 厄을 겪다. (넷째 厄)
(f) 낙양 옥중에서 죽을 厄을 겪다. (다섯째 厄)
(g) 반년동안의 공방 생활 후 이선(태을선군)과 재회하다.
(h) 17세에 부인에 封해지다.
(i) 20세에 부모와 재회하다.
(j) 70세에 昇天하다.

---

27) 채희윤, 앞의 논문, p.179.
28) <숙향전>에서는 入夢과 覺夢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즉, 현실계와 초월계의 경계선이 매우 모호하게 상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Ⅳ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9) 차충환, 「숙향전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1999, p.111 참조.

이처럼 숙향은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을 동반하고 또 관계 인물을 형성해가면서, 그리고 天命의 후광을 강력한 배경으로 삼은 채 위의 삶의 과정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밟아나가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天定原理가 <숙향전>의 서사 진행에 관여하는 정도를 위에 제시한 숙향의 삶의 과정과 1절에 제시한 <숙향전> 전체의 순차 단락을 중심으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행적 (a)는 순차 단락 ⑤에서 실현된다. 숙향이 5세 때, 전쟁으로 인해 김전은 가솔들을 데리고 강릉으로 피난을 간다. 그러나 적병들이 바로 뒤따르고 있어 전 가족이 함께 도망갈 상황이 되지 못하자 이에 김전은 부인 장씨에게 숙향을 바위틈에 숨기고 도망가자고 한다.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가는 일로 부부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오열하기도 한다. 하지만 김전 부부는 결국 옥지환 한 짝을 숙향의 옷고름에 달아주고 먼저 도망간다. 당시 김전의 발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도적이 급히 ᄯᆞ로고 ᄂᆡ 힘이 진ᄒᆞ니 우리두리 다 ᄉᆞ라나면 숙향갓튼 ᄌᆞ식을 다시 보려니와 우리 다 쥭으면 신치를 뉘 거두며 부모의 제ᄉᆞ를 뉘 밧드리요 아모리 인졍의 망극ᄒᆞ고 제 졍ᄉᆞᆼ이 잔잉ᄒᆞ나 숙향을 니곳ᄃᆡ 쑤고 잠간 피ᄒᆞ엿다가 적병이 지ᄂᆡ간 후 다시와 다려가ᄉᆞ이다" (이대본, p.9)

인물이 탄생한 후 부모와 분리되어 고아의 상태에 놓이는 경우는 일대기 구조를 근간으로 하는 작품 구조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대개 부친이 정치적인 이유로 분리되고, 이 때문에 母子가 다시 분리되거나, 부모가 우연히 得病하여 俱沒함으로써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처럼 인물이 부모와의 분리 후 고난의 현장에 던져지는 설정은 고난의 극복 뒤에 유도되는 성취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적 장치로서 일대기 구조의 한 관습일 뿐, 고난을 비롯한 인물의 일생을 統御하는 어떤 필연적인 계기가 事前에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30] 그러나 <숙향전>의 경우에는 앞서 제시한

왕균의 예언에서와 같이 인물의 삶을 統御하는 天定原理가 배후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인물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적 (b)는 순차 단락 ⑥에서 실현되며, 행적 (a)로 말미암아 겪는 첫째 厄이 된다. 단락 ⑥은 숙향이 도적에게 붙잡혀 죽게 될 운명에 처한 부분이다. 그러나 숙향의 삶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예정된 운명이므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고 최소한의 삶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계기가 필요하다. 이에 등장한 것이 단락 ⑦의 도적의 구원과 각종 異物들의 보살핌이다.

> "제 부모 바리고 가고 져 어린 것시 빅곱파 우난듸 무슴 죄로 쥭이리요? 닉이 아히 ᄉᆞᆼ을 보니 후일 귀히 되리니 쥭이지 말나. 이 곳듸 ᄭᅮ면 반다시 시랑의 밥이 되리라."ᄒᆞ고 업어다가 역마을의 ᄭᅮ고 가며 (이대본, p.12)

한 도적의 발화가 숙향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며 오히려 보다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준다. 이를 통해 보면 도적도 이미 일상적인 존재는 아니다.

이후 다섯 살이 된 숙향은 정처 없이 길을 헤맨다. 이 때 잔나비, 황새 등이 와서 먹을 것을 주고 추위를 막아준다. 여기서 잔나비, 황새 등은 단락 ⑧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 명사계의 후토부인이 파견한 존재이다. 이처럼 숙향은 天上界 存在들의 구원과 인도에 몸을 의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해나간 다. 물론 숙향으로서는 이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행적 (c)는 단락 ⑧에서 실현되고 있는 둘째 厄이다. 숙향이 갈 데 없어 앉아 울고 있는데 靑鳥가 꽃봉오리를 물고 나타나 숙향의 손등에 앉는다. 숙향이 이 꽃봉오리를 먹으니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정신이 맑아지며 몸에 향내가 진동한다. 이에 靑鳥를 따라 두어 고개를 넘어가 한 궁궐에 도달한다. 이 궁궐은 후토부인이 관장하는 명사계이다. 명사계는 죽은 자를 관장하는 곳이면서 天上界에 속하는 영역이다. 따라서 숙향이 이 명사계에 진입했다는 것은 이미 죽음에 해당하는 경험을 한 것이다. 이후 후토부인과의 대화가 바로

30) 차충환, 앞의 논문, 1999, p.112.

이어지는데 결국 후토부인이 숙향의 죽음을 구해준 셈이다.

이 대목에서 주목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천상계는 夢遊過程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으로서 地上界와는 단절된 것으로 형상된다. 그런데 여기서는 天上界가 '두어 고개 너머'에 있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地上界와 바로 이어져 있다.[31] 이것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있어서 천상과 지상이라는 엄격한 구분이 <숙향전>에서는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Ⅳ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숙향과 후토부인이 대면하고 있는 단락 ⑧의 공간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天上界 영역이다. 이곳에서 후토부인은 숙향의 내력과 삶의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준다.

> 부인 왈 "션녀 쳔ᄉᆞᆼ의 게실 ᄯᅢ 항아으게 득죄ᄒᆞ여 쥭게 되오니, 규성이 옥데게 술와 구ᄒᆞᆫ 은혜 잇숩더니, 이제 규성이 득죄ᄒᆞ여 인간의 나려와 남군 ᄯᅳ 장승상 부인니 되어ᄉᆞ오니, 션녀난 먼져 장승ᄉᆞᆼ 집으로 가, 겟셔 은혜를 십연을 갑푼 후의 ᄐᆡ을 션군을 만나 인ᄒᆞ여 부모도 만나 볼거시니, 그러ᄒᆞᄌᆞ면 이제 십오연니 되리다" (이대본, pp.18-19)

위의 인용문은 숙향이 부모 찾기의 관념을 드러내자, 부모와 재회를 하기는 하되 그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다고 하면서 행한 후토부인의 발언이다. 여기서는 대략 세 가지의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첫째, 지상적 고난의 원인이 월궁항아께 득죄해서 그렇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단지 天上罪 때문이라는 왕균의 발언보다는 더 구체적이다. 둘째, 10년 간 장승상댁에서 의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천상에서의 受惠에 따른 報恩의 일종으로 경험해야 하는 삶의 과정이다. 셋째,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는 태을선군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숙향이 겪는 고행은 이미 天上界에서 정해진 경로를 가는 것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

31) 차충환, 앞의 논문, p.113.

또한 다음 인용문은 부모 없이 살아야 할 15년의 세월을 수용할 수 없어 자살하고 싶다는 숙향의 말에 이어 나온 후토부인의 발언으로 이미 겪은 두 가지 厄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부인 왈 “션녀 아모리 쥭고져 ᄒᆞ여도 천ᄉᆞᆼ의셔 죄를 중이 어더 게시ᄆᆡ, 인간의 나려와 다섯번 쥭을 ᄋᆡᆨ을 지ᄂᆡᆫ 후의야 쳔ᄉᆞᆼ 죄를 면ᄒᆞ고 죠흔 시절을 보실 거시니, 그리 아옵쇼셔. 져점게 도적을 만나 죽을 면ᄒᆞ여 ᄒᆞᆫ번 ᄋᆡᆨ을 당ᄒᆞ시고, 이제 명ᄉᆞ게를 단여가오니 두 번 ᄋᆡᆨ을 지ᄂᆡᄉᆞ오나, 이 압히 또 세 번 ᄋᆡᆨ이 잇ᄉᆞ오니 죠심ᄒᆞ쇼셔." (이대본, p.19)

숙향과 후토부인의 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옥황상제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후토부인이 숙향의 삶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숙향의 삶에 대한 후토부인의 발언은 天定原理가 숙향의 삶을 근원적으로 統御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케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적 (d)는 단락 ⑪에 실현되어 있는 셋째 厄이다. 단락 ⑪은 숙향이 후토부인의 傳言대로 장승상 부부를 만나 10년의 세월을 보내고 15세가 되자, 그동안 경제적 이권을 누려왔던 사향이란 종의 모해를 받고-장승상의 옥장도와 부인의 금봉채를 훔쳤다는 누명을 뒤집어 쓴 채-정처 없이 길을 나서, 마침내 표진강에 투신하는 대목이다. 시간적으로는 그동안 10년의 세월이 지나 현재 15세의 나이가 되었고, 공간적으로는 장승상댁을 경유한 그 다음 지점이다.

장승상댁에서의 삶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서술의 가속이다. 즉 장승상이 숙향을 발견한 때는 숙향의 나이가 5세였는데, 5세부터 13세까지의 서술이 다음과 같이 압축되어 있고, 바로 15세에 이르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 "슉향이 졈졈 ᄌᆞ ᄅᆞ 나이 칠세의 인물이 졀ᄉᆡᆨ이요 ᄇᆡ호지 안인 글과 온갓 슈노키와 모를 것시 업스니 부인니 더욱 ᄉᆞ랑ᄒᆞ더라 슉향이 십ᄉᆞᆷ세 되ᄆᆡ" (이대본, p.24)

일반적으로 작가나 서술자는 자신이 서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주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서술 속도를 상대적으로 가속시키고, 반대로 중심적인 것이나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서술 속도를 감속시킨다. 다시 말해서 보다 중요한 사건들과 대화들은 보통 세부적인 장면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 서술 속도가 감속되고, 반대로 덜 중요하거나 배경적인 것들은 요약 기법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서술 속도는 그만큼 가속된다.[32] 이는 숙향의 5세 때의 경험과 비교해보면 그 서술 분량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5세에서 15세까지의 숙향의 삶을 이처럼 압축한 것은 서술자의 서술 초점이 다른 곳에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이 기간 동안의 숙향의 삶은 비교적 평탄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삶은 서술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락 ④와 ⑧에서 확인한 바, 서술자는 이미 15세까지의 숙향의 삶을 前生罪를 贖罪하기 위해 다섯 번의 厄을 거치는 과정으로서의 삶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고난을 수반하는 厄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고난 없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33] 이 점은 이후 세 번의 厄을 당하는 부분에서의 서술 분량이 5세 때의 서술 분량과 마찬가지로 길어지는 점을 보면 재차 확인되는 사항이다.

순차 단락 ⑩은 순차 단락 ⑪의 도출을 위한 필연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즉 단락 ⑧에 나와 있는 후토부인의 말을 상기한다면, 장승상댁과 숙향의 관계는 이미 前生에서부터 마련된 것으로, 숙향이 지상에서 장승상댁에 의탁하는 것은 천상에서 받은 은혜를 되갚는 報恩의 한 과정인 것이다. 그런데 장승상댁과 숙향의 地上에서의 인연은 10년이어서 10년을 경과하면 이들의 지상적 관계는 단절된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숙향의 운명이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사향의 모해와 숙향의 내쫓김은, 숙향은 장승상댁으로부터 분리될 수밖에 없는 서술의 당연한 수순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다.

---

32) 마이클 J. 톨란 저, 김병욱 · 오연희 공역, 『서사론』, 형설출판사, 1995, p.93.
33) 차충환, 앞의 논문, p.115.

숙향이 표진강에 투신했을 때에도 天上界 存在인 仙女와 표진강 龍女가 관여하여 숙향을 구해준다. 선녀와 용녀, 그리고 숙향간에 주고받는 대화는 단락 ⑪에 상세히 제시되어 있는데, 단락 ⑪의 내용 중 용녀의 발화는 앞서 인용한 바 있거니와 거기에는 숙향의 다섯 厄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단락 ⑪의 내용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숙향이 자신의 前生罪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이로 인해 태을선군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 유리잔의 이실갓흔 ᄎᆞ를 긔우려 쥬거날 숙향이 바다 마시니 그제야 월궁소아로 ᄉᆞᆼ례 압ᄒᆡ 근시ᄒᆞ다가 ᄐᆡ을 션관과 서로 글지어 화답ᄒᆞ고, 옥뎨의 월련단을 도적ᄒᆞ여 쥰 죄로 인간의 적ᄒᆞ하여 고ᄉᆞᆼᄒᆞ난 일과, 그 두 아ᄒᆡ난 월궁의셔 부리던 시비 쥴 알고 일변 ᄒᆞᆫ심ᄒᆞ며 일변 반가오물 익이지 못ᄒᆞ여 (이대본, p.41)

위의 인용문은 숙향이 이슬 같은 차를 마신 뒤 의식의 전환을 이룬 다음, 자신의 천상 죄목과 선녀와의 관계를 알게 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숙향의 '前生罪'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서술되고 있다.

또한 숙향이 '부모를 못 얻어 보는 일'에 서러움을 자아낸다. 이에 선녀가 태을선군을 만나야만 부모도 만날 수 있다는 정보를 전하자, 숙향이 마침내 "ᄐᆡ을션군은 어ᄃᆡ 게시며 이ᄉᆡᆼ 셩명은 무어시라 ᄒᆞ난요?"(이대본, p.43)와 같이 태을선군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선녀가 태을선군은 낙양 땅 이상서의 아들이 되어 부귀를 누린다고 답하자, 숙향은 같은 죄를 지었는데 어찌 선군은 귀히 되게 하고 자신은 고생케하느냐 하는 의문을 표명한다. 선녀가 죄의 발생이 숙향 때문이라고 답하자 숙향은 마침내 탄식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선녀는 천태산 마고할미가 이미 지상으로 내려갔으니 그에게 의탁하라고 하면서 구슬 같은 것 두 개를 주며 먹기를 권한다.

행적 (e)는 순차 단락 ⑫에 실현되어 있는 넷째 厄이다. 단락 ⑫는 서술상 이미 정해진 것이고 독자 역시 이미 알고 있는 대목으로, 숙향이 표진강 선녀의 말대로 동쪽으로 향하다 盧田에서 화재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화덕진군이라는 天上界 存在에 의해 구출되는 장면이다. 숙향을 구해주고 공간을 이동시킨 화덕진군은 "화지난 면ᄒᆞ여시나 ᄯᅩ 낙양 옥즁 익을 엇지할고" (이대본, p.55)라는 말을 전한다. 이처럼 화덕진군 역시 숙향의 삶의 과정을 꿰뚫고 있는 존재이며, 숙향의 삶의 과정은 天定原理에 의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적 (f)는 숙향이 낙양 옥중에서 죽을 厄을 겪는다는 내용인데, 이 점은 순차 단락 ⑲에 실현된 다섯 째 厄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숙향이 네 가지 厄을 겪는 동안 배우자와 부모 찾기라는 목표를 향해 상승구조를 지닌 채 발전되어 오다가 다섯째 厄을 위해서 이야기가 분화된다는 것이다. 즉 여기서 적강한 다른 주인공의 축이 나타난다.

순차 단락 ⑲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은 숙향과 이선의 혼인이다. 그리고 혼인의 계기와 과정은 단락 ⑬-⑰에 그려져 있다. 여기서 이선이 문면에 등장하는데, 이것은 다섯째 厄이 숙향 혼자의 厄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정에서 기거하던 중 어느 날 숙향은 기이한 夢事를 경험한다. 夢中에서 숙향은 蟠桃 두 개와 桂花 한 가지를 태을선군에게 주라는 옥황상제의 命을 받아 그것들을 태을선군에게 줄 찰나에, 그만 자신의 옥지환 진주가 떨어져 태을선군의 手中으로 들어가는 꿈을 꾼 것이다. 꿈을 깬 후 숙향은 마고할미의 요청에 따라 夢中 체험을 繡놓아 조장이라는 장사꾼에게 판다.

한편 이선 역시 숙향과 똑같은 夢中 체험을 경험하는데, 이선은 꿈을 깬 후에도 숙향의 옥지환 진주가 자신의 손에 놓여 있는 것이다.[34] 이선은 매일

34) 숙향과 이선의 몽중 체험은 정확히 일치한다. 이 중에서 이선의 夢事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ᄉᆞᆼ뎨 시녀를 명ᄒᆞ여 반도 두 ᄀᆡ와 계화 ᄒᆞᆫ 가지로 션을 쥬시거날, 션니 국궁ᄒᆞ여 바드며 그 션녀를 눈쥬어 보니, 션녀 붓그러ᄒᆞ여 급히 도라셜 제, 손의 ᄭᅴ엿던 옥지환의 진쥬 ᄲᅧ져 니션의 압ᄒᆡ 써러지거날, 션니 가만니 ᄒᆞᆫ 손으로 줏더니, ᄃᆡ셩ᄉᆞ 즁들리 ᄌᆡ식을 ᄃᆡ려ᄒᆞ고 셕종을 울니거

꿈속의 소아만을 생각하다 어느 날, 조장이 가져 온 簇子의 繡를 보고 놀라 숙향을 찾기 위해 그녀가 겪었던 고난의 여정을 그대로 밟는다. 결국 숙향과 이선의 夢中 체험은 두 사람이 地上에서 혼인하는 근원적인 계기로 작용하며, 이선은 숙향과의 관계를 天定緣分으로 인식하고 숙향을 찾아 마고할미와 이선의 고모인 여부인의 중개로 혼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운명 지어져 있는 것처럼, 숙향은 이선의 부친 이상서로 인해 낙양의 옥중에 구금되어 죽을 厄을 겪는다. 이상서가 숙향을 핍박한 주된 원인은 이전에 이미 양왕의 구혼을 허락한 적이 있다는 점, 不告而娶했다는 점, 숙향의 현실적 처지가 빈천하다는 점의 현실 논리 때문이다.[35] 하지만 이선으로부터 숙향이 구금된 사실을 전해들은 여부인은 황성으로 올라가 이상서를 질책한다.

> "꿈의 옥용을 타고 광ᄒᆞᆫ전니란 집의 드러가니 ᄒᆞᆫ 선녀 여다라 날다러 이르되 ᄂᆡ ᄉᆞ랑ᄒᆞ던 소ᄋᆡ를 그ᄃᆡ으게 맞긔나니 메나리를 ᄉᆞᆷ으라 ᄒᆞ거날 ᄭᆡ다르니 남가일몽이라" (이대본, p.104)

> "부뷔난 쳔정이라 ᄋᆡ즁ᄒᆞ미 귀쳔니 업시ᄆᆡ, 우리 황제도 션후를 폐ᄒᆞ고 후궁으로서 비를 ᄉᆞᆷ아거든, ᄒᆞ물며 ᄂᆡ 쥬중ᄒᆞ여거날, 무죄ᄒᆞᆫ ᄉᆞ람을 쥭이미 올치 안일가 ᄒᆞ노라." (이대본, p.121)

위의 인용문은 여부인의 夢事 내용과 황제의 실제 사례를 근거로 이상서를 무수히 질책하는 부분이다. 여부인의 질책을 들은 이상서는 숙향을 죽이지 말고 멀리 내쫓으라고 한다. 이상서는 天定原理가 현실 논리를 앞선다는 여부인의 말을 아직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天定原理가 현실 논리를 앞선다는 인식 태도가 이상서에게 일어나는 것은 순차 단락 ㉒에 이르러서이다. 순차

날, 그 쇼ᄅᆡ에 놀라 ᄭᆡ니 요지 경ᄀᆡ눈의 암암ᄒᆞ고 풍유쇼ᄅᆡ 귀의 징징ᄒᆞ며 손의 과연 진쥬 ᄒᆞᆫ나흘 쥐여거날 (이대본, p.75).

35) 김진영 · 차충환, 앞의 책, p.27.

단락 ㉒는 숙향이 이상서 부부를 만나 며느리로 인정받는 내용이 전개되는 대목이다.

어느 날 숙향은 삽살개가 집안 器物을 땅에 묻고, 한 소년으로부터 도적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삽살개와 더불어 마고할미의 墳墓를 찾아간다. 마고할미의 墳墓는 마침 이상서댁 동산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서 숙향은 이선의 乳父와 乳母를 만나 자신의 前後事를 세세하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상서 부인은 乳父로부터 숙향의 前後事를 전해 듣고, 이선을 낳을 때 仙女가 일러준 말과 숙향의 履歷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天定緣分임을 깨닫는다.[36] 그리고 內堂으로 들어와 절하는 숙향의 탁월한 모습을 본 이상서 역시 이선의 선택이 옳았음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마침내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된다.

여기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이상서와 숙향의 관계 해결 방식이다. 앞서 살펴본 바, 이상서는 숙향의 처지가 빈천하다고 해서 그녀를 죽이려고 했다. 그런데 숙향의 履歷이 과거 이선이 태어날 때 해산을 도운 선녀의 전언과 같음을 확인하고, 또 탁월한 모습의 인물됨을 직접 보고는 바로 며느리로 인정하는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관계가 호전된 직접적인 계기는 기록해 둔 바의 仙女의 傳言에서 포착할 수 있는 天定緣分임은 말할 것도 없다. 결국 이상서 역시 天定原理를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관계의 형성에는 天定原理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37]

행적 (g)는 이상서댁에서 실현된다. 반년 동안 공방 생활을 한다는 것은, 숙향이 이상서부부로부터 며느리로 인정받은 후 이선이 과거에 급제하여 내려와 재회하는 단계 바로 직전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숙향은 이선이 거처했던 봉유정에서 홀로 기거하게 된다. 숙향의 이러한 삶조차도 예언대로 실현

36) 이상서부인은 이선을 해산할 때 해산을 도운 天上 仙女의 말을 기록해둔 바 있는데, 천상 선녀의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난 인간 ᄉᆞ람이 아니라 천ᄉᆞᆼ의 히산 가음아는 션녀러니, ᄉᆞᆼ데의 명을 밧ᄌᆞ와 이긔 히산ᄒᆞ난 양을 보고 오라 ᄒᆞ시ᄆᆡ 왓ᄉᆞᆸ거니와, 이 이긔 빗필은 남양 ᄯᆞ의셔 오날 ᄒᆞᆫ 씨의 날 거시니 빗비 가나이다.” 부인니 ᄉᆞ례 왈, “션녀 나를 위ᄒᆞ여 누지의 오시니 감격ᄒᆞ거니와, 이 아히 비필 성명은 뉘라 ᄒᆞ며 뉘집 녀ᄌᆞ 되어난잇가?” 션녀 답왈 “천ᄉᆞᆼ 일홈은 월궁소이요, 인간 일홈은 김젼의 녀ᄌᆞ 슉향이라.”ᄒᆞ고 ᄒᆞ직ᄒᆞ거날 부인니 즉시 긔록ᄒᆞ여 ᄯᆞ니라" (이대본, pp.70-71).

37) 김진영 · 차충환, 앞의 책, p.29.

되고 있음을 볼 때, 天命을 서술 원리로 하는 서술자의 서술 구도가 얼마나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행적 (h)에서 숙향이 17세에 부인에 封해진다는 것은 숙향이 황제로부터 정열부인의 爵位를 받는 것을 말한다. 황제가 숙향을 정열부인에 封한 것은 숙향의 節行을 높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제 서술상에서는 숙향의 節行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없었다. 즉 <춘향전>의 춘향처럼 節行을 시험당하는 위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숙향의 節行을 칭송하며 정열부인에 封하는 것은 <숙향전>의 정해진 서술 구도에 견인된 서술자의 작위적 설정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적 (i)의 부모와 재회는 순차 단락 ㉘에서 실현된다. 부모와 재회하는 일은 지상적 인간으로서의 숙향의 최대 목표이다. 대개 지상에서의 고난은 부모와의 분리에 기인한다. 그리고 분리는 인물의 유년 시절에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부모와의 재회에 대한 관념은 인물의 전 생애를 지배하는 주요 인자라고 할 수 있다.[38] 이 점은 숙향도 마찬가지이다. 숙향이 부모를 찾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문의식으로, 즉 자신의 정당한 신분을 획득하는 길이다. 따라서 숙향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를 맞는 것까지 모두 포괄해 천정의 죄업을 성공적으로 성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부모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찾기가 바로 숙향이 거쳐야 하는 탐색의 궁극적 목표가 되는 것이다.[39]

그런데 우리 고소설에서 부모와의 재회는 인물이 나라에 큰 공적을 세운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고난과 신분적 열세를 일거에 소멸시키는 大功후에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귀결물로 제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숙향전>의 경우에는 다소 다른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숙향이 부모와 재회할 수 있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단락 ㉔에 기인한다.

순차 단락 ㉔에서 이선은 형주자사가 되어 治政을 위해 형주로 떠난다. 이

38) 차충환, 앞의 논문, p.121 참조.
39) 채희윤, 앞의 논문, p.183 참조.

선이 형주자사로 자원한 것은 무엇보다도 양왕의 婚事 요구를 일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양왕의 婚事 요구가 이선의 형주行으로 중단되지 않음을 볼 때, 이 단락의 작품 내적 기능은 오히려 숙향의 부모 재회를 유발하는데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숙향이 형주자사로 있는 이선을 찾아가던 중에 결과적으로 부모와의 재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숙향의 나이 20세가 되어 마고할미의 방향 지시와 헤어질 때 證票로 간직했던 옥지환을 매개로 하여 부모와 재회하는 것 역시 서술 구도에서 천정원리가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적 (j)의 昇天은 순차 단락 ㉞에서 실현된다. 순차 단락 ㉞는 황태후의 병이 위중하여 이선이 선약 탐험을 갔을 때 구로선에게 받은 환약을 먹고 승천하는 내용이다.

> 잇씨 초왕 부처 나이 칠십이 되여더니, 칠월 망일의 ᄌᆞ손을 다리고 잔치할ᄉᆡ, ᄒᆞᆫ 청의ᄒᆞᆫ ᄉᆞ람이 공즁으로 나려와 초왕의 손을 ᄌᆞᆸ고 왈, “나난 동빈니러니, ᄉᆞᆼ제의 명을 밧ᄌᆞ와 그ᄃᆡ를 다려가려 왓스니, ᄒᆞᆫ가지 가ᄉᆞ이다.” 초왕 왈, “뉵신으로 엇지 가오릿가?” 동빈 왈, “젼일 구로션니 쥬던 환약이 어ᄃᆡ 잇난잇가?” 초왕이 그제야 ᄭᆡᄃᆞᆺ고 ᄂᆡ여 졍열왕비로 더부러 ᄒᆞᆫ ᄀᆡ식 먹고 ᄌᆞ손으로 ᄒᆞᆫ말도 못ᄒᆞ고 ᄉᆞᆼ천ᄒᆞ니, (이대본, p.227)

예정대로 숙향의 나이 70세가 되자, 上帝의 命을 받은 동빈이 내려와 이들의 승천을 돕는다. 숙향과 이선의 승천을 위한 이선의 행적은 다음 절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지만, 이들의 승천 역시 천명의 서술 구도에서 설정된 것임을 확인하게 한다.

이상으로 숙향의 삶의 행적을 기본으로 하여 주인공 숙향뿐만 아니라 이선과 여타 인물들이 천명을 수용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 <숙향전>의 서사구조를 살펴보았다.

3. 구조의 중심 이동과 天定原理의 실현

이선이 문면에 등장하는 것은 숙향의 넷째 厄이 지나간 뒤이다. 즉 넷째 厄의 해결 후에 다섯째 厄을 위해서 이선이 등장한다. 그는 애초부터 숙향과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우리의 전통적인 의식에서 四柱가 같으면 운명도 같다는 것이 그렇다.[40]

> 긔축 ᄉᆞ월 쵸팔일의 긔이ᄒᆞᆫ 향ᄂᆡ 진동ᄒᆞ며 오ᄉᆡᆨ구름이 집을 두로거날, 일가 상ᄒᆞ 다 경동ᄒᆞ더니, 밤즁은 ᄒᆞ여 (이대본, p.6)

> 왕시 ᄐᆡᆨ긔 잇시ᄆᆡ 싱남ᄒᆞ기를 ᄆᆡ일 츅수ᄒᆞ더니, 그 이듬히 긔축 ᄉᆞ월 쵸팔일의 황제 ᄉᆞᆼ셔를 명쵸ᄒᆞ여 황셩의 가시고 부인니 혼ᄌᆞ 게시더니, 그날 앗춤의 예 업던 오ᄉᆡᆨ구름이 집을 두로고 긔이ᄒᆞᆫ 향ᄂᆡ 진동ᄒᆞ거날 (이대본, p.69)

이러한 문맥을 통해보면 두 주인공들의 운명은 천상의 운명을 쫓아서 이루어진 공동의 운명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더구나 이들의 가연이 이루어지는 것은 숙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선에 의해서라는 점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띄고 있다. 즉 텍스트에 드러난 내용으로 미루어 숙향은 표진물에서 용녀와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이선이 그의 배필로 짝지어진 것을 아는데 반해 이선은 그가 탄생할 때부터 이미 배우자가 정해져 있다.

> "이 ᄋᆡ기 ᄇᆡ필은 남양 ᄯᆞ의셔 오날 ᄒᆞᆫ시의 날거시니 빗비 가나이다" 부인이 ᄉᆞ례 왈 "션녀 나를 위ᄒᆞ여 누지의 오시지 감격ᄒᆞ거니와, 이 아히 ᄇᆡ필 셩명은 뉘라ᄒᆞ며 뉘집 녀자 되여난잇가" 선녀 답왈 "천ᄉᆞᆼ 일흠은 월궁소ᄋᆡ요, 인간 일흠은 김젼의 녀ᄌᆞ 슉향이라" ᄒᆞ고 ᄒᆞ직ᄒᆞ거ᄂᆞᆯ, 부인니 즉시 귀록ᄒᆞ여 ᄯᆞ니라. (이대본, pp.70-71)

---

40) 이러한 현상은 우리 고소설에서 흔히 보여진다. 옥주기연에서는 3쌍둥이 남녀의 사주도 그러하며 연분도 그렇게 타고나는 것으로 되어있다.(채희윤, 앞의 논문, p.201 참조.)

이것은 <숙향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즉 天定配匹은 이미 그들이 잉태 전에 정해졌는데도 왜 이선의 탄생에만 드러나고 숙향은 네 번의 厄을 지나고 나서야 밝혀지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점은 <숙향전>의 구조가 상승하면서 이어지는 두 원의 고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숙향의 순환적인 삶의 둘레에 이선의 고리가 연결되면서 그 두 개의 고리가 맞물리는 점에서 이선의 구조로 발전되어 감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숙향의 다섯째 厄은 숙향의 厄인 동시에 이선의 厄임을 상징한다. 예컨대 이선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는 숙향의 한 접점을 축으로 삼아 발전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41]

다시 행적 (f)[42]를 살펴보면, 숙향의 이 다섯째 厄은 이선의 성공적인 배우자 찾기 탐색의 결과인 혼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는 결국 天定原理가 그대로 실현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

또, 이 다섯째 厄은 두 사람에게 중대한 고행의 시작이며 끝인 것을 알 수 있다. 숙향은 다섯째 厄을 겪고, 옥중에서 풀려나와 모든 厄이 마무리되는 것에 반해, 이선은 다섯째 厄의 원인이 되는 숙향과의 혼인을 위해 숙향이 헤쳐 나온 고난의 여정을 그대로 밟았다. 이 고난은 숙향의 경우처럼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숙향과 재회 후 황태후의 선약 탐색이라는 고난을 별도로 겪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고소설, 특히 謫降構造를 근간으로 하는 작품들은 대개의 경우 '謫降-分離-苦難-立功-再會-復歸'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술의 초점은 대개 '분리-고난-입공'에 맞춰져 있고, '재회-복귀'의 과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것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인물들의 재회가 이루어지면 대부분 남성 인물의 경우 각자의 위상에 부합하는 官職을 부여받고, 여성 인물의 경우 자식을 생산한다. 이때 주인공의 나이는 대개 20세 전후가 된다.

41) 채희윤, 앞의 논문, p.202.
42) 행적 (f) : 낙양 옥중에서 죽을 厄을 겪다.(다섯째 厄)

그리고 이야기 시간과 서술 시간은 단숨에 흘러 주인공들이 天上으로 복귀하는 장면에 맞춰진다.[43]

<숙향전>의 경우 '분리-고난-입공'에 대한 서술자의 관심은 여타 소설과 동일하지만 '재회-복귀'의 과정은 차이가 난다. 즉 재회 이후 곧장 복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상당히 긴 분량의 사건이 전개되어 있다. 물론 이야기 시간은 주인공의 청년기에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反轉을 유도하는 사건 계기가 또 하나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매향의 혼인 고집과 이선의 거절로 인한 여러 사건들이 추가된 것이다.

단락 ㉙[44]는 매향이 이선의 둘째 부인이 되고자 고집하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 단락은 이후 서사 전개의 기본 방향을 지시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 "이 아기 슈틱홀 졔 양왕의 꿈의 일위 노인니 일으되 봉ᄂᆡ산 셜즁ᄆᆡ 그ᄃᆡ 집ᄋᆡ 써러지니 외얏남게 접ᄒᆞ면 가지 번성ᄒᆞ리라" (정문연A본, p.164)

양왕에게는 아들은 없고 매향이라는 딸만 있는데, 위의 인용문은 매향을 낳을 때의 태몽이다. 여기에서 '외얏남긔 가지 번성한다'는 것은 서술 문맥상 이선과의 혼인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향과 이선의 혼인 역시 天定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선의 시련은 이러한 天定原理를 거부함으로써 비롯된다. 즉 단락 ㉙는 天定原理의 地上的 實現이 어떠한 모습으로 작용하는지를 재확인하게 한다.

단락 ㉛[45]에서 이선은 황태후의 병을 구하기 위해 仙藥을 찾아 나선다. 선약은 地上界와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것인데, 이러한 이선의 선약 탐색 작업은 황태후의 병과 매향과의 혼인 거부가 표면적인 계기가 된다. 하지만 근

43) 이와 관련해서 조동일은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언제나 청년이고, 주인공의 청년 시절이 지나면 이야기는 사실상 다 끝난다"라고 지적하였다.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p.339.)

44) 단락 ㉙ : 매향이 이선과의 혼인을 고집하다.

45) 단락 ㉛ : 황태후가 병이 나고, 이선이 선약을 구해오다.

원적으로는 자신의 正體를 알아 매향과의 혼인이 이미 정해진 天命이라는 사실을 확인케 하기 위한 서술 구도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이선은 선약 탐색 중 구로선을 만나 그가 주는 '이슬 같은 차'를 마신 후, 得罪하여 謫降한 사실을 재차 알게 되고, 또 능허선의 딸 설중매와 부부였던 사실도 기억하게 된다. 이에 이선은 능허선과 설중매의 소재에 대해 묻는다. 이선의 물음에 구로선은 능허선은 김전의 처가 되었고, 설중매는 매향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매향은 지상에서 둘째 부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또 이선이 숙향을 위해 매향을 박대했다는 것, 능허선이 숙향을 원망하자 옥황상제가 능허선과 숙향을 지상의 母子가 되게 하여 서로 고생을 겪도록 했다는 것, 지상에서 매향이 아니라 숙향이 첫째 부인이 된 것은 결국 숙향으로 인해 이선이 謫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나중에 이선과 숙향이 함께 昇天하고 매향은 능허선과 終身한 후에 昇天할 것이라는 점 등을 상세히 말한다. 구로선의 이러한 말을 들은 이선은 죽어도 하늘이 정하신 일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구로선과 천태산 마고할미로부터 약을 얻어 황성으로 돌아온다.

결국 地上으로 돌아온 이선은 황태후의 병을 고쳐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매향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한다. 숙향과 매향은 사이좋게 지내고 여러 자식들을 낳아 가정의 화목을 도모한다. 이후 70세가 되었을 때 예정대로 이선과 숙향은 여동빈의 안내를 받아 승천하고, 그 후 김전 부부와 매향 역시 昇天하게 된다.

이상에서 이선의 선약 모험은 이중의 의미를 갖는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天定原理에 따라 매향과의 해후를 가능케 하며, 그가 약을 얻는 것은 총체적인 自我를 확신하는 단계인 것이다. 地上에서의 정체성은 숙향에 의해서 완결되지만 天上에서의 원래 신분의 획득은 이선의 선계 여행을 통하여 성취됨으로써 이들은 완벽한 정체성을 획득한다.

또한 이것은 이선이 자신의 正體를 알아 본래 天上界 존재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행적 (j)[46]의 유도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기여한다. 그 외에도 地上에

서 등장했던 주요 인물들이 이미 天上에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이라는 점, 天上에서의 관계가 天定原理에 의해 재편되어 실현된 삶이 地上에서의 삶이라는 점, 결국 이것은 地上에서의 인간관계 및 삶은 이미 天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점 등을 확고히 인식케 하기 위한 指標임을 알 수 있게 한다.[47]

이상으로 숙향과 이선의 행적을 중심으로 天定原理에 따라 이들의 삶이 地上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숙향전>은 天定原理가 서사구조와 긴밀히 결합되면서 전개된 작품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46) 행적 (j) : 70세에 승천하다.
47) 차충환, 앞의 논문, p.124.

Ⅲ. 施惠-報恩 구조와 세계인식

1. 施惠-報恩의 諸樣相

일반적으로 일대기 구성을 가지는 고소설의 경우, 작품의 서두에서는 주인공 부모의 家系 정보와 주인공의 탄생이 있고 바로 주인공의 행적이 서술되는 것이 보통이다.[48] 그러나 <숙향전>의 서두에는 주인공의 탄생 이전에 施惠-報恩의 구조가 먼저 나온다.

<숙향전>은 이러한 施惠-報恩의 구조가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설정되어 있다. 즉 숙향의 父인 김전이, 어부들에게 잡혀 죽게 된 거북을 구해주고, 나중에 그 거북으로부터 은혜를 보답 받는다는 것인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작품 서두의 이러한 설정이 작품의 대단원까지 일관된 구조를 형성하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49]

<숙향전>은 이외에도 施惠-報恩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사건 전개가 다수 펼쳐져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Ⅱ장의 순차단락에서 施惠-報恩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단락을 재배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김전과 거북이 서로의 생명을 구해주다.

② 김전이 거북으로부터 얻은 구슬을 예물로 하여 혼인하다.

③ 반야산에서 도적 중 한 사람이 숙향을 살려주다.

④ 잔나비, 황새, 까치 등이 숙향을 도와주다.

---

48) 이러한 전개는 '傳' 양식의 본래적인 속성이다. 한문학 양식의 하나로서 '傳' 양식의 제 특징에 대해서는 고경식과 김균태 참조.(고경식, 「고려시대 전 연구」, 『고려시대 한문학 연구』1, 집문당, 1995. 김균태, 「전문학」, 『한국고전소설론』, 한국고전소설편찬위원회편, 새문사, 1990) 차충환, 앞의 논문, p.144 재인용.

49) 권선미, 「숙향전에 나타난 세계관」,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p.38.

⑤ 표진강 용녀가 숙향을 구해주다.
⑥ 화재를 만났을 때 화덕진군이 숙향을 구해주다.
⑦ 숙향이 마고할미를 만나 이화정에서 살다.
⑧ 이선이 숙향의 역정을 되짚으면서 숙향을 찾아다니다.
⑨ 숙향과 이선이 혼인하다.
⑩ 마고할미가 사라지고 숙향이 제를 올리다.
⑪ 숙향이 화덕진군에게 제를 올리다.
⑫ 숙향이 표진강 용왕에게 제를 올리다.
⑬ 숙향이 잔나비, 황새, 까치 등에게 먹이를 주다.
⑭ 김전이 표진강 용왕으로부터 숙향의 행적과 앞으로 만날 일을 전해 듣다.
⑮ 숙향이 부모와 재회하다.
⑯ 이선이 봉래산, 천태산 등 異界를 탐험하면서 약을 구해오다.
⑰ 숙향이 도적에게 관직을 주다.

이상 17개의 단락이 이야기의 주요 단계에 배열되면서 <숙향전>의 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한편 위의 단락들은 施惠와 報恩하는 주체의 관계에 따라 대략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주인공 탄생 이전에 맺어진 施惠-報恩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단락들(①,⑤,⑧,⑫,⑭,⑯), 둘째, 報恩의 기능 소재로 거북이 준 구슬이 매개 작용을 하는 단락들(②,⑨,⑫,⑮), 셋째, 천상인과 동물들의 구원과 숙향이 되갚는 행위로 발전한 施惠-報恩의 단락들(③,④,⑤,⑥,⑦,⑩,⑪,⑫,⑬,⑰) 등이 그것이다.[50] 따라서, 施惠-報恩의 관계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시혜-보은의 상호 작용

일반적으로 報恩譚의 형태는 施惠 당대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후대에 이르러 報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숙향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50) 차충환, 앞의 논문, pp.144-145 참조.

이 이채롭다. 또한 報恩의 방법에 있어서 김전이나 숙향, 그리고 이선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을 구해주는 행위가 報恩의 중심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다.[51] 이에 따라 <숙향전>은 施惠-報恩의 짜임이 견고하게 나타나 있다.

먼저 단락 ①[52]에 형성된 김전과 거북이 서로의 생명을 구해주는 모습을 살펴보자. 단락 ①에서, 어느 날 김전은 벗을 전송하기 위해 酒饌을 갖추어 반하수를 건너가다가 어부들이 거북을 잡아 구워 먹으려고 하는 광경을 본다. 그 거북은 이마에 '天'字, 배에 '王'字가 새겨져 있었으며, 마치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구해주기를 바란다. 이에 김전은 가지고 있던 酒饌을 어부들에게 주고 거북을 물에 놓아 준다. 이후 김전은 동정호에 가서 벗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큰 장마를 만나 거의 죽게 될 위험에 처했는데, 이때 거북이 와서 김전을 안전하게 강어귀에 옮겨다 놓고, '壽'字와 '福'字가 새겨진 구슬 두 개를 김전에게 준 다음 홀연 사라진다. 이에 김전은 "이난 반다시 반ᄒᆞ슈의 노흔 거북이 은혜를 갑노라고 나를 구ᄒᆞ고 이 구실을 쥬고 가도다"(이대본, p.3)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온다.

이상이 단락 ①의 대강의 내용이거니와, 이 부분에서 김전과 거북 간의 施惠-報恩 양상은 김전이 거북을 살려준 보은으로 죽을 위기에서 거북의 도움으로 살아나며, 또한 보배로운 구슬을 얻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처럼 주인공의 탄생 이전에, 그것도 人間과 非人間系 異物간의 施惠-報恩의 이야기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단락 ①에서 김전과 거북간의 授受關係가 거북의 報恩으로서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그 둘의 관계가 여기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후의 서사 전개를 보면, 거북 자신뿐만 아니라 거북의 부친, 동생, 조카 등이 등장하여 김전뿐만 아니라 숙향과 이선 등에게 지속적으로 報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거북의 보은 사건이 지닌 구체적인 의미는 유교적인 적선의 결과라

---

51) 민경록, 「숙향전 배경설화 연구」, 『문화전통론집』6집,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p.84.
52) 단락 ① : 김전과 거북이 서로의 생명을 구해주다.

든가, 불교적인 인과응보와는 다른 특성이 나타난다. 즉 <숙향전>에서는 報恩의 행위가 당대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동원되어 지속되고 있는데, 다른 작품에서는 결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숙향전>에서 施惠-報恩의 양상이 지속되는 모습은 다음 단락들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단락 ①의 거북(=龍)이 스스로 報恩하는 모습은 단락 ⑤[53]와 ⑧[54]에서 찾아진다.

> 용녀난 어듸로셔붓터 와 구하신잇가 용녀 답왈 "옛날 ᄉᆞ히용왕이 슈졍궁의 모와 잔치할ᄉᆡ ᄉᆞ랑ᄒᆞ난 시녀 유리잔을 ᄭᅵ여시ᄆᆡ, 죄 입을가 감초고 고치 아니ᄒᆞ엿다가, 부왕이 아르시고 노ᄒᆞᄉᆞ 나를 반하슈의 ᄂᆞᆺ치시ᄆᆡ, 물가의 나왓다가 어부으게 잡피여 쥭게 되어더니, 맛춤 긤승셔 구ᄒᆞ물 입어 ᄉᆞ라나시ᄆᆡ 그 은혜를 갑지 못할가 원ᄒᆞ여습더니 (중략) 긤승셔 은혜를 갑고져 ᄒᆞ여 왓습더니, 모든 션녀 다려가시니 다시 보ᄉᆞ이다" ᄒᆞ고 물을 평지 갓치 힝ᄒᆞ더라 (이대본, pp.39-40)

이 부분은 숙향이 장승상댁에 의탁하여 살다가 시비 사향의 모해를 입고 결국 쫓겨나 유리걸식하는 고난에 직면하게 되자 표진강에 투신하는 부분이다. 이때, 숙향을 구해준 용녀는 전에 숙향의 부친 김전이 반하수 물가에서 구해주었던 바로 그 거북이다. 용녀는 숙향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 주는 것으로 김전의 자녀에게도 報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단락 ①의 거북이 김전의 딸로 대상을 바꾸어 報恩한 것이다.

다음은 이선이 마고할미의 거짓말을 듣고 숙향의 역정을 되짚으면서 돌아오다가 표진강 용자를 만나 앞길을 안내 받는 내용이다.

> 문득 우흐로셔 제 쇼리나거늘 ᄇᆞ릭보니, ᄒᆞᆫ 동ᄌᆞ 머리의 연화를 ᄭᆞᆺ고 일렵편

53) 단락 ⑤ : 표진강 용녀가 숙향을 구해주다.
54) 단락 ⑧ : 이선이 숙향의 역정을 되짚으면서 숙향을 찾아다니다.

쥬를 타고 쏠 갓치 오거날, 니랑이 동ᄌᆞ다려 도라갈 길을 뭇고져 ᄒᆞ더니, 그 동ᄌᆞ 니랑의 압히 와 이르되 "낭군은 숙향을 보고져 ᄒᆞ거든 이 빅의 오르쇼셔" 니랑이 반겨 즉시 노ᄉᆡ와 ᄒᆞᆫ가지 빅의 오르니 동ᄌᆞ 빅를 도로혀 놋코 제만 불고 안자스되, 빅가미 쏠 갓더라. ᄒᆞᆫ 곳의 다다라 동ᄌᆞ 제를 근치고 왈 "나는 이 물 직킨 신령이러니, 져젊게 슉향이 이 물의 와 ᄡᆞ져죽거늘, ᄂᆡ 구ᄒᆞ여 져 질노 보ᄂᆡ시니 낭군도 져 질노 가쇼셔" 니랑이 그 동ᄌᆞ으게 ᄉᆞ례ᄒᆞ더니, 발셔 간ᄃᆡ업더라 (이대본, pp.89-90)

위의 인용문에서는 거북이 용자가 되어 숙향의 배필인 이선을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단락 ⑫[55]에는 숙향이 報恩하고 남해용왕이 재차 報恩하는 광경이 그려져 있다. 숙향이 정열부인이 되어 이선의 임지를 향해 형주로 가다가 표진강에 이르러 제를 올린다. 숙향의 이 행위는, 과거 표진강에 투신했을 때, 단락 ⑤의 표진강 용녀가 자신을 구해준 것에 대한 報恩으로 행한 것이다. 이처럼 報恩에 報恩이 뒤따르는 과정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거북의 부친이 報恩하는 행위는 단락 ⑭[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느 날 김전은 이선의 천거로 양양태수가 되어 형주자사로 있던 이선을 뵙고 돌아오다가 반하수에서 한 노인을 만난다. 이 노인은 이인적 풍모를 가진 자로서, 숙향의 행적을 알려주는 척하면서 김전에게 무수한 곤욕을 주는데, 김전이 노인으로부터 겪은 곤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인 왈 "슉향의 ᄉᆞ싱은 즘간 들어거니와 ᄇᆡ곱파 말 못ᄒᆞ리로다" ᄒᆞ거날, 김젼이 일힝의 가져온 음식을 ᄂᆡ여 먹이고 쳥ᄒᆞᆫᄃᆡ, 노인니 ᄇᆡ부르지 아니타 ᄒᆞ거날, 김젼니 ᄒᆞ인으게 분부ᄒᆞ여 쥬ᄎᆞᆫ을 갓쵸와 오라 ᄒᆞ니, 노인 왈 "ᄒᆞ인의 가져온 음식을 먹으면 ᄒᆞ인의 졍셩이니, ᄒᆞ인의 ᄯᆞᆯ을 ᄎᆞᆺ고져 ᄒᆞ난냐" 김젼니 친니 슐집의 가 술문 돗 ᄒᆞᆫ 바리와 각ᄉᆡᆨ 음식을 갓쵸와 친니 가져다가 구러 드리니, 노인니 ᄉᆞ양치 아니ᄒᆞ고 다 먹은 후의 웃셔 왈 "ᄂᆡ 슐 취ᄒᆞ여 말 못

55) 단락 ⑫ : 숙향이 표진강 용왕에게 제를 올리다.
56) 단락 ⑭ : 김전이 표진강 용왕으로부터 숙향의 행적과 앞으로 만날 일을 전해 듣다.

ᄒᆞ니, 너 다려온 ᄒᆞ인은 먼져 보ᄂᆡ고 너만 잇다가 듯고져 ᄒᆞ거든, ᄂᆡ 슐 ᄭᆡ도록 지다리라" ᄒᆞ고 줌들거날 귐젼니 모든 ᄒᆞ인을 보ᄂᆡ고 혼ᄌᆞ 잇다가 듯고 져 ᄒᆞ더니, 문득 취우와 평지의 물이 ᄌᆞ나 되고 귐젼니 셧난 ᄃᆡ난 물이 억ᄀᆡ를 넘무되 종시 요동치 아니ᄒᆞ고 셧더니, 이윽ᄒᆞ여 강풍이 이러나며 눈니 만니와 귐젼의 옷시 졋고 물 속의 셧시되, 종시 요동치 아니코 셧더니, 그제야 노인니 줌을 ᄭᆡ여 (이대본, pp.168-170)

이러한 곤욕은 김전이 숙향을 반야산에 버리고 간 것에 대해 질책하고, 또 김전의 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행해진 것이다. 그런 다음 노인은 숙향의 그동안의 행적을 자세히 알려준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자신은 표진강 용왕으로 김전이 구해준 거북의 부친임을 밝히고, 앞으로 조만간에 숙향을 만날 것이라고 하고서 사라진다.

"나난 과연 이 물 직킨 용왕이러니 져적게 ᄂᆡ ᄌᆞ식이 거복이 되어 물가의 갓다가 어부으게 잡펴 거의 쥭기 되엿더니 그ᄃᆡ 구ᄒᆞ물 입어 ᄉᆞ라시ᄆᆡ 나도 ᄌᆞ식을 위ᄒᆞ여 그ᄃᆡ 은혜를 갑푸려 ᄒᆞ고 ᄉᆞᆼ제게 고ᄒᆞ고 나려와" (이대본, p.173)

이 부분에서 거북의 부친인 용왕이 주체가 되어 자기 딸인 거북(용녀)의 은혜를 되갚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락 ⑯[57]에서는 이선이 황제의 명령으로 仙藥을 찾아 나선다. 仙藥은 봉래산, 천태산 등 地上界를 넘어선 곳에 있는 것으로서 지상적인 힘으로는 구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超現實的 存在의 힘을 빌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러한 역할을 남해 용왕과 용왕의 아들이 수행한다.

"나는 이 물 직킨 남회용왕이러니, ᄉᆞᆼ셔 누지의 지ᄂᆡᆯ 쥴 엇지 알니요? 져적의 ᄂᆡ 누우 부왕게 득죄ᄒᆞ여 반하물 가의 갓다가 어부으게 즙펴 쥭기 되어ᄉᆞᆸ더니, 귐ᄉᆞᆼ셔 구ᄒᆞ여 ᄉᆞᆯ여시ᄆᆡ 은혜 갑풀 길 업ᄉᆞ와 져 구실 ᄒᆞᆫ ᄉᆞᆼ을 ᄃᆡ려ᄉᆞᆸ

57) 단락 ⑯ : 이선이 봉래산, 천태상 등 異界를 탐험하면서 약을 구해오다.

더니, 져 구실은 극ᄒᆞᆫ 보ᄇᆡ라," (중략) 밧그로서 ᄒᆞᆫ 용ᄌᆞ 드러와 졀ᄒᆞ고 안지니, 왕이 문왈, "너 어ᄃᆡ로셔 돈다?" 용ᄌᆞ ᄃᆡ왈, "시승임게셔 이르되, '요ᄉᆞ이 ᄐᆡ을셩이 ᄉᆞᆼ제게 득죄ᄒᆞ고 인간의 젹거ᄒᆞ여시니, 직금 황ᄐᆡ후 병을 구ᄒᆞ려 ᄒᆞ고 봉ᄂᆡᄉᆞᆫ 약 어드러 가ᄆᆡ 너 집을 지닐 거시니, 네 ᄐᆡ을셩을 모시고 봉ᄂᆡᄉᆞᆫ의 가 약을 어드라.'ᄒᆞ더이다." (이대본, pp.195-197)

이처럼 남해용왕과 용자는 이선의 공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데, 결국 이선은 이들의 도움으로 開言草 등 仙藥을 구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용왕과 용자의 도움 역시 일종의 報恩 행위에 속한다. 즉 김전이 거북을 구해준 행위가 이선의 異界 체험에서도 작용한 것이다.[58] 이처럼 단락 ①의 김전과 거북이 서로의 생명을 구해주고 행하는 施惠-報恩의 행위는 그 관계가 지속되면서 <숙향전>의 한 기본 구조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2) 보은의 기능 소재

단락 ①[59]에서 김전은 거북의 보은으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나며, 또한 보배로운 구슬을 얻는다. 구슬은 거북이 김전의 施惠에 보답하기 위해서 준 것으로, 훗날 구슬로 인해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보은의 뜻으로 준 구슬이 <숙향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거북이 준 구슬은 단락 ②[60]에서 김전의 혼인 예물로 사용된다.

귐젼의 나히 니십이로되 집이 간난ᄒᆞ여 취처지 못ᄒᆞ여더니, 영천 ᄯᆞ 중회란 ᄉᆞ람이 공명의 ᄯᆞ지 업서 벼살은 아니ᄒᆞ나 ᄃᆡᄃᆡ 명가 ᄌᆞ손니요, ᄌᆡ물이 유여ᄒᆞ되 아달은 업고 다마 ᄒᆞᆫ ᄯᆞᆯ을 두어시니, 인물이 쵸월ᄒᆞ고 효셩이 지극ᄒᆞᄆᆡ

58) 차충환, 앞의 논문, pp.147-148 참조.
59) 단락 ① : 김전과 거북이 서로의 생명을 구해주다.
60) 단락 ② : 김전이 거북으로부터 얻은 구슬을 예물로 하여 혼약한다.

ᄉᆞ회를 갈니더니, 김젼니 어지단 말을 듯고 ᄆᆡ파를 보ᄂᆡ여 구혼ᄒᆞ니, 김젼니 납폐할 것시 업셔 다만 그 구실 두ᄀᆡ를 보ᄂᆡ여더니, 중회의 부인니 보고 왈 "공후 부가의셔 구혼ᄒᆞ미 구름갓거늘 굿ᄐᆡ여 김젼으게 허락ᄒᆞ시니, 이제 납폐ᄒᆞᆫ 것실 보ᄆᆡ 그 간난ᄒᆞ물 가히 알지라" 장회 왈 "혼인논ᄌᆡ난 이젹의도라. 제 비록 간난ᄒᆞ나 우리 유여ᄒᆞ니 무슴 ᄌᆡ물을 탐ᄒᆞ리요 그러나 쳔만금 엇기난 쉬오나 이 구실은 나라 힘이라도 극히 엇긔 어렵고 쳔ᄒᆞ의 극ᄒᆞᆫ 보ᄇᆡ라" ᄒᆞ며 즉시 옥징인을 불너 그 구실노 옥지환 ᄒᆞᆫ숑을 만드라 ᄯᆞᆯ을 쥬고 ᄐᆡᆨ일ᄒᆞ여 김젼을 마지니, 그 아름다온 풍치와 헤일ᄒᆞᆫ 거동은 비할 ᄃᆡ 업더라. (이대본, pp.3-5)

이렇듯 김전은 장회의 청혼에 납폐할 것이 없어 구슬을 폐물로 보낸다. 이를 본 장회부인은 김전의 가난함에 불만을 가지나 장회는 "쳔만금 엇기난 쉬오나 이 구실은 나라 힘이라도 극히 엇긔 어렵고 쳔ᄒᆞ의 극ᄒᆞᆫ 보ᄇᆡ라"(이대본, p.4) 말하고, 김전을 사위로 맞아들인다. 결국 거북이 준 구슬이 김전의 혼인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숙향의 모친이 가지고 있던 구슬로 만든 이 옥지환은 숙향과 이선이 혼인할 때, 숙향이 부모와 재회할 때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증표가 된다.

숙향과 이선은 같은 날 같은 때에 천상 요지경을 구경하는 夢事를 경험하는데, 이 요지경 체험 중 이선이 숙향의 옥지환에 박힌 진주를 습득한다. 즉 玉皇上帝가 숙향에게 반도 두 개와 계화 한 가지를 이선에게 주라고 하는데, 이 때 옥지환의 진주가 떨어지고 그것을 이선이 주운 것이다.[61]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선이 覺夢 후에도 그 진주를 손 안에 쥐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선은 숙향을 천생연분으로 생각하고 숙향을 찾아 결연을 맺는 일에 힘을 쏟는다. 그 후 숙향은 마고할미의 중개를 통해 이선이 가진 진주를 직접 확인한 뒤 혼인을 허락하게 되고, 마침내 단락 ⑨[62]에서 숙향과

61) 소이를 명ᄒᆞᄉᆞ 반도 두 ᄀᆡ와 계화 ᄒᆞᆫ 가지를 ᄐᆡ을 쥬라 ᄒᆞ시거날, 소이 명을 밧ᄌᆞ와 마지못ᄒᆞ여 ᄒᆞᆫ 손의 반도를 옥반의 담아 들고 계화를 쥐고 ᄐᆡ을을 쥬니, 그 션관니 두 손으로 바드며 이윽히 소이를 눈쥬어 보거날, 소이 그 모든 즁의 붓그러워 몸을 도로힐 제, 슉향의 ᄭᆡᆫ 옥지환의 진쥬 ᄯᅥ러지거날, 슉향이 줏고져 ᄒᆞ더니, 그 션관니 발셔 손의 쥐어거날, (이대본, p.63)

62) 단락 ⑨ : 숙향과 이선이 혼인하다.

이선은 혼인하기에 이른다.

숙향이 부모와 재회할 때에도 역시 구슬이 큰 구실을 하게 된다. 단락 ⑮[63]에서 김전 부부는 숙향의 살아온 행적을 표진강 용왕으로부터 듣는다. 또 생김새 역시 어릴 때 헤어진 숙향과 같으므로 숙향임을 확신하나, 그래도 김전 부부는 전쟁을 만나 헤어질 때 숙향의 주머니에 넣어 둔 기록물과 옥지환을 확실한 증표로 하여 부모와 자식임을 확신하고 재회하게 된다. 이처럼 거북이 준 구슬은 옥지환으로 변형되어 만남과 재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단락 ⑫[64]에서 숙향이 표진강 용왕을 위해 보은의 행위로 제를 올릴 때 남해용왕으로부터 구슬 두 개를 얻는데, 이 구슬은 이선이 異界로 선약을 찾을 때 숙향의 생존 여부를 이선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증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65] 이선으로 하여금 선약 탐색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선이 봉래산으로 황태후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선약을 구하러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 배가 가라앉게 되었을 때 한 짐승에 의해 불법으로 이곳을 침노한 죄로 용궁에서 심문을 받는다. 이 때 선약구득을 위해 떠나기 전 숙향이 준 옥지환 때문에 살아남을 뿐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당도할 수 없는 일만 이천리 밖의 봉래산에서 선약을 구하는 데에 용왕이 흔쾌히 도와주어 마침내 황태후의 병을 낳게 하는 공업을 이룬다. 또 이 구슬은 황태후의 목숨을 살리는데도 결정적인 기능을 수행한다.[66]

이처럼 작품 초두에서 이미 이 작품의 내포적 주제의 설정을 '거북'이라는 동물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바탕으로 서사 전개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67] 즉 거북이 보은의 뜻으로 준 구슬은 작품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報恩의 의도를 더욱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63) 단락 ⑮ : 숙향이 부모와 재회하다.
64) 단락 ⑫ : 숙향이 표진강 용왕에게 제를 올리다.
65) 부인 왈, "쳡도 신물을 표ᄒᆞ라다"하고 옥지환 한 쪽을 쥬며 왈, "이 지환 빗치 누르거든 병든 줄 아옵고 검거든 죽을 줄 알고 젼과 갓치 빅빅ᄒᆞ거든 무ᄉᆞ흔 줄 아옵쇼셔." (이대본, p.192)
66) 위션 옥지환을 ᄐᆡ후 시체 우의 노흐니 술빗치 도로 싱ᄒᆞ거날 (이대본, p.221)
67) 권선미, 앞의 논문, p.49.

(3) 원조자와 주인공 간의 시혜-보은

<숙향전>에 드러난 施惠-報恩 구조는 단락 ①이 형성한 구조에서만 찾아지는 것은 아니다. 숙향은 이화정의 마고할미를 만나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때까지 구원자들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숙향이 구원을 받는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일이 報恩한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구원자가 주인공을 구원하고 주인공이 그 구원자나 구원자의 집에서 의탁하는 일은 우리 고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이다. 그러나 그 구원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되갚는 행위는 여타 작품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숙향이 받는 援助는 단순한 援助가 아니라 受恩이며, 숙향의 되갚는 행위는 報恩이라 할 수 있다.[68]

숙향은 다섯 살까지는 부모의 은혜를 입고 자라나고 난리를 만나서는 늙은 적병과 잔나비와 까치 및 황새의 은혜를 입어 살아나고, 명사계에 이르러서는 후토부인의 은덕으로 되살아나고, 표진강에 빠져서는 거북이나 거북의 아버지인 용왕 또는 다른 선녀들의 도움을 받고 재생하며, 노전의 화재를 만나서는 火神인 화덕진군의 은혜를 입어 목숨을 구하고, 그 다음에는 마고할미를 만나 그녀의 은덕으로 살아가며, 게다가 다시 그녀의 도움으로 이선과 짝을 맺기에까지 이른다. 낙양 옥에 갇히어 매 맞아 죽을 운명에 처하여도 역시 마고할미의 도움으로 무사히 풀려날 수 있었다.

이처럼 천상인과 동물들에게 은혜를 입은 후 숙향은 報恩의 뜻을 행하는데, 이는 형주자사로 있는 이선을 찾아가는 중에 화덕진군, 표진강 용왕에게 제를 올리고 황새 등에게 먹이를 주는 등의 행위로 나타난다. 숙향을 중심으로 전개된 受恩과 報恩의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69]

---

68) 차충환, 앞의 논문, p.148.
69) 차충환, 앞의 논문, p149 참조. 숫자는 단락번호이며, 영문자는 대칭구조를 표시하기 위한 기호이다.

* 受恩

③(a) 반야산에서 도적 중 한 사람이 숙향을 살려준다.

④(b) 잔나비, 황새 까치 등 이물들이 숙향을 도와준다.

⑤(c) 표진강 용녀가 숙향을 구해주다.

⑥(d) 화재를 만났을 때 화덕진군이 구해준다.

⑦(e) 마고할미의 보살핌을 받는다.

* 報恩

⑩(e') 마고할미가 사라지고 숙향이 제를 올린다.

⑪(d') 숙향이 화덕진군에게 제를 올린다. (담긴 술이 없어지고 거위알 같은 구슬이 담겨 있음)

⑫(c') 숙향이 표진강 용왕에게 제를 올리다.

⑬(b') 숙향이 잔나비, 황새, 까치들을 위해 밥과 고기를 걸가에 놓아주자 모든 짐승들이 나타나 먹는다.

⑰(a') 숙향이 도적에게 관직을 준다.

위의 표를 보면 受恩과 그에 대한 報恩이 정확한 대칭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단락 ③에 대한 報恩이 단락 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 <숙향전>의 내용 전개는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해서 은혜를 갚음으로 끝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락 ③은 숙향의 삶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사건이고, 단락 ⑰은 이야기의 대단원 부분, 즉 숙향이 화락을 누리는 부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듯 <숙향전>에 있어서 報恩의 구현이 얼마나 철저하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이런 구조를 통해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락 ⑬과 ⑰의 설정 상황을 보면 그 점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 단락 ⑬에서, 숙향이 장승상 부부와 재회한 뒤 부모를 찾아 길을 행하는데, 잔나비, 황새, 까치 등이 갑자기 길을 막아선다. 이에 영문을 모르는 하인들이 활을 쏘아 그 짐승들을 잡으려고 하는데, 숙향이 이를 만류하고 쌀 서른 섬을 가져다가 밥을 지어 그들을 먹인다. 밥을 다 먹은 잔나비 등은 순순히 길

을 비켜준다. 그리고 이야기의 말미에 子弟들의 官爵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선의 둘째 아들이 오랑캐를 파했다는 서술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때 도적 한 명을 잡아온다. 이 도적은 단락 ③에서 숙향을 살려주었던 그 도적이었다. 이를 숙향이 알아보고 서량 태수에 封한다는 것이 단락 ⑰의 내용이다. 단락 ⑬과 ⑰는 어느 것이든 서술상의 개연성 없이 다소 무리하게 서술된 것이다. 사실 이 단락들은 이야기 전개상 빠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서술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술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작가의 報恩觀念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70]

또한 施惠-報恩의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숙향전>에는 變身 모티프가 많이 나타나 있다.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龍女가 거북으로 變身하여 반하수에서 놀기도 하고, 龍王이 異人的 風鏡의 노인으로 變身하여 김전을 골려주기도 한다. 또 天上界에서 불을 관장하는 화덕진군은 노인으로 變身하여 화재를 만나 죽게 된 숙향을 구해주기도 하고, 또 이선에게 발을 비비라고 하는 등 수모를 가하기도 한다. 마고할미 역시 자유자재로 變身한다.[71] 또 남해 용왕의 아들 龍子는 바람, 黃龍 등으로 변하여 이선의 행보를 도와주기도 한다.[72] 變身은 생물들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제물이 金銀寶貨로 바뀌기도 하고 지팡이가 다리가 되기도 하는 등 무생물까지도 자유로이 變身한다.[73] 그 외에도 특히 이선의 仙藥 탐색 장면에는 超現實的 存在들의 變身이 폭넓게 일어나고 있다.[74]

---

70) 차충환, 앞의 논문, p.149.

71) 마고할미가 변신에 능하다는 것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된다. 즉 할미 왈, “나난 천ᄐᆡᆫᄉᆞᆫ 마고할미러니 월궁항아의 명을 바다 낭ᄌᆞ를 구ᄒᆞ러 인간의 나려왓더니, 져졈게 낭ᄌᆞ 쑴의 요지예 가실 제도 ᄂᆡ 청됴되여 인도ᄒᆞ엿고, 낭군 오실 ᄯᆡ도 ᄂᆡ 숨신산 션관을 다 청ᄒᆞ여 오고, 옥중의 잇실 ᄯᆡ도 ᄂᆡ 청됴되여 낭군게 편지 젼ᄒᆞ고, 낭ᄌᆞ의 온갓 일을 다 보와숩더니” (이대본, pp.124-125)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이 외에도 마고할미는 사령들이 숙향을 곤장을 칠 때 사령의 팔에 올라 매질을 못하게 하는 등 보이지 않는 존재로도 變身한다.

72) 이 점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용ᄌᆡ 변ᄒᆞ여 일진 청풍니 되여 도망ᄒᆞ여 일광노게 가니"(정문연A본, p.180), "그는 근심 말르시고 ᄂᆡ 등의 올르쇼셔 ᄒᆞ거ᄂᆞᆯ 샹셰 용ᄌᆞ의 등의 올르니 용ᄌᆡ 문득 변ᄒᆞ야 황뇽니 되여 한 번 쇼쇼와 그 바회 우희 올르니" (정문연A본, p.190)라는 부분 등이 그것이다.

73)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그 즁이 뉵환쟝를 믈의 더지니 변ᄒᆞ야 다리 되거ᄂᆞᆯ" (정문연A본, p.199)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變身한 존재들이 모두 그 상대자에게 호의적이라는 사실이다. 호의적일 뿐만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마고할미는 물론이고 남해용자, 화덕진군, 표진강 용왕 등이 모두 그러하다.[75] 이로 볼 때 <숙향전>에 나타난 變身 모티프는 施惠와 報恩이라는 <숙향전>의 기본 구도를 보다 철저히 해주면서 그 구도 속에 포괄되는 모습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76] 이와 같이 <숙향전>에서는 천상인과 동물들이 주인공을 구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시 되갚는 행위로 발전하여 施惠-報恩의 구조를 지속시키면서 작가의 철저한 報恩觀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施惠-報恩 구조에 나타난 세계인식

變身 모티프를 포함한 <숙향전>의 報恩譚이 형성된 배경과 거기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앞서 특히 거북 즉 龍의 報恩譚이 <숙향전>에 引入된 배경이 주목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張鴻在[77]의 논의에서 상세하게 정리된 바 있다. 즉 張鴻在는 거북의 報恩譚을 알려주는 중국측 자료와 우리측 자료, 龍의 報恩譚을 알려주는 중국측 자료와 우리측 자료를 따로 구분해서 정리한 다음, <숙향전>의 거북(=龍) 報恩譚을 당대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龜甲類 報恩說話들의 광범위한 영향 아래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거북의 援助와 龍의 報恩 모티프는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각종의 설화 자료를 통해 무수히 확인된다. 그 중에서 거북의 援助에 대한 기록은 東明王의

---

74) <숙향전>에 나와 있는 變身 모티프들에 대해서는 성현경이 상세히 지적한 바 있다. (성현경, 앞의 책, pp.165-170.)

75) 화덕진군이 이선에게 발을 비비라고 하는 등 수모를 가했지만, 이것은 이선의 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화덕진군은 이선에게 숙향이 이화정에 그대로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화덕진군 역시 상대자에게 호의적인 존재임이 틀림없다. 또한 표진강 용왕 역시 처음에는 김전에게 곤욕을 주지만, 마침내는 숙향에 대한 정보를 세세히 가르쳐주고, 이것이 결국에는 은혜 갚기의 일종임을 전해 준다.

76) 차충환, 앞의 논문, p.152.

77) 장홍재, 「숙향전」,『고전소설연구』, 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일지사, 1993.

일대기를 기록한 『三國史記』의 해당 부분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고,[78] 龍의 報恩譚은 口碑 說話 "龍王 孫子 구하고 報恩받은 이야기"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79] 요컨대 <숙향전>은 거북(=龍) 報恩說話를 비롯해서 당대 민간에 전승된 각종의 異物 報恩說話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숙향전>에 나타난 救援과 報恩 행위는 대체로 행위의 주체가 變身하여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것은 <숙향전>의 작가가 變身 모티프에도 친근했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인데,[80] 異物 報恩 모티프와 마찬가지로 變身 모티프 역시 초기 서사물에서부터 후기 고소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등장하고 있다.[81] 특히 서사물에 나타난 變身 모티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문적인 관심도 지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變身의 體系와 類型이 논의되기도 하고,[82] 變身에 나타난 原初的 思性 및 思想的 基底 문제도 꾸준히 검토되어 왔다.[83] 이것은 變身에 대한 관념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對自然觀 및 存在論的 물음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84]

그러면 <숙향전>의 報恩譚에 함축된 의미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申載

---

78)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1, <시조동명성왕. 유리왕〉의 "於是 魚鼈浮出成橋 失蒙得渡" 부분.

79) 『한국구비문학대계』8-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1980-1988, pp.535-537. 이 이야기의 골자는 地上界 사람이 잉어로 變身한 용왕의 손자를 구해주고 목숨을 보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도 『한국구비문학대계』 유형 분류 415번에는 용왕의 報恩담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대체로 地上界 사람이 잉어, 자라, 개 등으로 變身한 龍王의 子孫을 구해주고, 龍王은 그 사람을 龍宮으로 데려가서 환대하거나 龍宮의 진귀한 보물로 報恩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80) <숙향전>의 變身모티프에 주목하여 성현경은 아예 〈숙향전>을 變身小說로 규정하기도 했다. (성현경, 앞의 책, p.165)

81) <단군신화>에서의 곰의 變身. <동명왕신화>에서의 河伯과 朱蒙의 變身 경쟁 등 초기 國祖神話에는 變身話素가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영웅소설 유형에도 이 變身話素는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한다. (차충환, 앞의 논문, p.154.)

82) 이에는 이상일, 「변신설화의 유형분석과 원초사유」, 『대동문화연구』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1과 김미란, 『고대소설과 변신』, 정음문화사, 1984가 대표적이다.

83) 이에는 이상일의 위의 논문과 박용식, 『고소설의 원시종교사상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pp.132-171 등이 대표적이다.

84) 變身의 存在論的 意味에 대해서는 박용식의 언급이 간명하다. "(變身을 통한)다른 두 世界의 넘나듬에는 兩者를 동일시하는 상상력이 요구되었고, 이는 領域이 구분되기 이전의 原初的 상태에 대한 지향성 때문인 듯하다. 어쩌면 이는 머나먼 과거에 존재했던 혼돈 내지 질서 이전의 세계에 대한 향수이자 母性에로의 回歸現象인지도 모른다." (박용식, 위의 책, p.142). 한편 본고는 變身 모티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론하지 않기로 한다.

弘[85]은 가엾은 이웃을 도와야 되며 받은 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原初的인 倫理意識으로 설명했으며, 李尙九[86]는 작가의 소박한 道德王義的 觀念으로 해석했다. 즉, 이상구는 <숙향전>에 구현된 철저한 報恩 현상의 함축적 의미를 첫째, 남을 도와주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을 받는다는 관념과 둘째,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하라는 메시지의 반영으로 보고, 이러한 도덕적 모토는 기본적으로 勸善懲惡이나 因果應報的 道德觀念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하여 이상구는 이러한 도덕관념은 작가의 水平的 人間觀과 접맥되는 것으로서, 家長의 절대적 권위와 남녀의 차별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는 封建家父長的 秩序를 일정하게 止揚하는 의의를 지닌다고 보았다. 한편 임성래[87]는 <숙향전>에서의 報恩의 강조를 대중소설의 통상적 주제인 勸善懲惡을 통한 사회정의의 구현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대체로 勸善懲惡的 觀念, 因果應報 思想 등으로 풀이하고 있음을 보는데, 이러한 해석은 기본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勸善懲惡과 因果應報에서 더 나아가 <숙향전>의 報恩譚, 특히 異物報恩譯에 투영된 작가와 수용자들의 存在論的 觀念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非人間系存在를 인식하는 관념, 그리고 人間과 非人間系 存在의 관계를 인식하는 관념이 어떠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88]

우선 古代人들의 精靈崇拜思想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대인들은 天地 · 日月 · 星辰 · 風雨 · 巖石 · 山川 . 動植物 등 天然自然物에 대하여 畏敬心을 갖고, 이를 靈的 存在로 神格化하는 精靈崇拜思想을 하나의 종교적 신앙처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근저에는 그들이 精靈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당연히 어떤 超越的인 힘을 本有한다고 보는 믿음 때문이다.

---

85) 신재홍, 앞의 논문, p.538.
86) 이상구,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 박사논문, 1994, p.256.
87) 임성래, 「숙향전」,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p.52. 임성래는 또 「숙향전」에서 報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당시 淸에 대한 적개심과 明에 대한 報恩의 당위성을 강조하려는 작가의 의도와 관련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위의 책, p.54) 반해 차충환은 이에 전혀 근거가 없는 언급이라고 했다.(차충환, 앞의 논문, p.155)
88) 차충환, 앞의 논문, p.155.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집단의식을 형성하게 될 경우, 우리 인간들은 動物과 人間의 同質性 혹은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非人間系 存在의 우위성을 인식하게 되고, 결국 인간들은 非人間系 存在의 超越的인 힘이 삶의 근원적인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龍이나 거북 등 소위 神異性을 대표하는 異物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외경심과 더불어 그들이 가진 어떤 절대적인 힘을 일방적으로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龍神崇拜思想이 동양 사회에서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89] 결국 이러한 고대인들의 관념으로 인해, 龍과 거북 등 異物들의 인간에 대한 救援과 報恩 이야기가 친근한 한 양상으로 받아들여져 작품 속에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龍과 거북 등 異物들이 항상 인간들 가까이에서 어려움에 처한 인간들을 구해주고 반대로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구원해주는 모습 속에는, 人間과 非人間系 存在는 원래부터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同質的이라는 관념, 즉 人間과 非人間系 存在는 본래 未分的 領域 속에서 서로 同質性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未分的 思考[90]가 기본 관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91]

따라서 <숙향전>의 작가는 龍이나 거북 등의 異物들을 擬人化해서 인간들의 지척에서 서로 구원하고 보답하는 이야기를 일차적으로 수용하여 <숙향전>의 한 줄기를 형성하였고, 독자들은 그러한 이야기를 적극 수용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심리적 근저에는 動物과 人間은 원래 다르지 않고 同質的이라는 관념, 모든 存在들은 同一根源性을 가진다는 未分的 관념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89) 박용식은 龍神의 성격과 그에 대한 崇拜思想, 그리고 우리 고소설에 들어가 있는 龍神 모티프의 종합적인 검토를 한 바 있다. (박용식, 앞의 책, pp.67-80)

90) 未分的 思考는 김태곤에 의하면 原本(arche-pattern) 思考가 되는데, 原本 思考는 모든 존재는 時空間이 分化되지 않은 카오스적 상태에서 同一根源을 두고 있고, 이 同一根源性에 의해 모든 존재가 서로 循環 가능하다고 믿는 사고를 말한다. 循環과 카오스로의 回歸 가능성을 믿는 만큼 우리 인간들은 分化되고 秩序化된 코스모스 속의 일생을 止揚하고 카오스적인 未分化 상태를 열망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된다는 믿음 속에서 巫俗을 행하고 소설을 읽으며 문화를 향유한다는 것이다.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pp.154-193과 pp.461-515 참조.

91) 차충환, 앞의 논문, pp.155-156 참조.

Ⅳ. <숙향전>의 지향의식

1. 天定原理의 실현으로서의 숙명론적 지향

‘고대소설’로 부르는 조선왕조시대의 소설은 흔히 ‘동양적 예정론’을 바탕으로 구조화되어 있다. 주인공과 부차적 인물들은 소설의 본격적인 줄거리를 이루는 현세 생활 이전에 天上, 기타의 異界에서 생활하던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異界 생활은 현세 생활을 여는 계기가 되고 있고, 주인공들의 현세에서의 운명적인 행동과 선택은 전생의 異界 생활과 긴밀히 맺어져, 현세에서의 운명적인 행동을 이루는 주인공들의 최종적인 운명도 대개 異界로의 회귀로 귀결됨으로써 은연중 일종의 ‘예정론’을 확인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운명에 대한 예정의 주체는 전통적으로 異界(천상)에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로 관념된 ‘玉皇上帝’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 대행자와 같은 존재로 암시되고 있는데, 이는 오랜 동양적 사고의 소산으로 보인다. 고대소설이 대부분 이와 같은 동양적 예정론 위에서 소설적 구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전통적 의식으로 보아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92]

이미 Ⅱ장에서 <숙향전>의 서사구조를 통해 天定原理가 지상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살펴본 것처럼 <숙향전>의 밑바탕에도 ‘하늘이 정한 것은 피할 수 없으며, 인간들이 현재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 것은 모두 自業自得이다.’와 같은 생각이 깔려 있다.

사향이 천벌을 받아 죽은 것, 이선의 아버지가 처음에 자식이 없어 고통을 겪는 것, 죄를 짓지 않은 채 스스로 하강한 매향(설중매)이 귀한 존재로 태어나 고통 없이 사는 것, 숙향이 천한 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선과 결혼하게 되는 것 등도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숙향이 고난을 겪

92) 황패강, 앞의 논문, p.237.

게 되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정해 놓은 운명에 의한 것이고, 숙향이 죽음을 당할 뻔하면서도 이선과 결혼할 수밖에 없었던 것 또한 이런 연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숙향전>을 통해서 고소설의 통상적인 주제인 勸善懲惡, 因果應報와 더불어 인간의 운명은 어떤 절대자에 의해 정해진 것이고, 그 운명을 거역함이 없이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숙명론을 나타내고 있다. 즉 <숙향전>은 확실히 착한 일을 한 이는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자는 벌을 받게 마련이라는 생각, 자기가 쌓은 업에 따라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게 마련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이나 사상은 불가 · 도가(선가) · 유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93]

<숙향전>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앞서 살핀 것처럼 작품 초반에 설정된 天定原理가 숙향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작품 초반에 숙향의 삶에 대한 왕균의 예언이 제시되어 있는데, 숙향의 삶은 결과적으로 이 예언들의 구체적인 실현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숙향은 이러한 단계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밟아왔던 것이다. 물론 도중에 고통스런 삶을 감내할 수 없어 정해진 천명을 거역하려고도 하나, 천명은 거역할 수 없는 것임을 후토부인, 표진강 선녀 등 天上主宰者인 玉皇上帝의 대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난 후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의 길을 저항 없이 걸어 나간다.

또한 숙향뿐만 아니라 <숙향전>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삶과 사건 설정 자체가 천명의 엄격한 示顯을 확인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94] 숙향이 험난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숙향을 도와주는 동물들 역시, 玉皇上帝가 숙향을 地上界로 謫降시키면서 이미 정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운명론은 <숙향전>의 내용 곳곳에 담겨 있다. 이선의 誕生談을 통해서 이들의 결연도 하늘이 이미 정해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선이 태어날

93) 성현경, 「숙향전론」, 앞의 책, p.170.
94) 차충환, 앞의 논문, p.161.

때 선녀가 모친에게 그의 배필이 낙양 땅 김전의 딸 숙향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결연은 철저히 하늘의 뜻임을 알 수 있다. 즉 주인공의 탄생은 곧 태몽의 실현이며, 현세 부부의 결연은 이들이 하강할 때 이미 하늘이 정해준 숙명인 것이다. 여기에서 전생인 天上界에서 地上으로 탄생하는 것도 玉皇上帝의 뜻이며, 현세 부부로서 인연을 맺는 것도 현세 인간의 의지로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우주를 주재하는 玉皇上帝가 미리 정해 놓은 天命이라고 할 수 있다.

숙향은 월궁소아로 謫下人間하여 고초를 겪다가 다시 월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서두부분에서 관상가 왕균을 등장시켜 우선 사주로써 설명하고 수시로 예정된 숙명의 암시를 받는다. 소아가 인간에 와서 다섯 번의 厄을 겪는 것도 예정된 숙명인지라 도망갈 길이 없다. 이 예정론은 이선 · 김전 부부 · 장승상 부인 · 매향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숙향의 과거와 예정된 미래의 숙명은 후토부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독자의 뇌리에 심어진다. 그리고 <숙향전>은 용녀와 선녀를 통하여 예정론을 더욱 강조한다. 부모가 숙향을 잃고 애태우는 것도 예정된 것이고, 마고할미 또한 숙향의 예정된 숙명을 알고 그 예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준다. 또한 후반부에서 이선이 일부다처를 반대하다가 天定의 일임을 알고 체념하고, 선경에 가서 약을 구하여 황태후를 살린 것 등등 어느 하나 예정론과 결부되지 않은 것이 없다.

따라서 인간은 하늘이 부여한 바꿀 수 없는 숙명에 순응하면서 인생행로를 개척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生死苦樂 · 榮枯盛衰 · 富貴貧賤 · 離合集散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관계가 숙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고소설은 이러한 숙명을 아무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 그 중에서도 <숙향전>은 숙명소설로 규정해도 좋을 만큼 인세에 적강하였다가 천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이 절대불변의 결정에 따른다.[95] 즉 인간의 운명은 절대자에 의해 정해진 것이고, 그 운명을 거역함이 없이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숙명론적 세계관이다.

95) 권선미, 앞의 논문, pp.62-63 참조.

그리고 이 준엄한 숙명론이 <숙향전>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2. 서사적 특성으로서의 초월주의적 지향

소설이란 문학양식은 시간과 공간 위에서 진행되는 주요 인물간의 갈등과 그 해결의 문제를 서사적 문맥으로 형상해내는 것을 주요한 특성으로 삼고 있다. 이런 서사성으로 표현되는 이야기의 진술은 작가가 구축하는 허구성의 개성에 따라 작품의 특성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고소설의 경우에는 소설이 갖춘 내용이나 형식, 특히 주제적 성향의 관습성으로 인하여 많은 작품들이 유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특히 주제적인 측면에서는 윤리지향의 주제 제시에 따라 勸善懲惡이라는 거대 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연구가들로부터 주제의 상투성과 정형성이란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그러나 <숙향전>은 당대의 여타 소설이 보여주던 사건의 전개와는 구분되는 개성 있는 서사적 전개를 보여준다. 往來性, 또는 來往性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주인공의 '오고 감'의 의도적 반복은 이 작품의 강한 개성으로 구현되고 있다.[96]

또한 神聖小說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고소설의 대부분은 天上界와 地上界라는 二元的 世界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들 고소설의 주인공은 천상에서 범한 잘못의 대가로 지상에 적강하여 온갖 고난을 겪은 후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다시 천상으로 귀환하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97] 神聖小說의 전형적인 형태로 거론되는 <숙향전> 역시 주인공 숙향이 천상에서 적강하여 온갖 고난을 겪다가 다시 천상으로 귀환한다는 내용이다.

二元的 공간구조를 바탕으로 한 고소설의 경우, 天上界와 地上界의 사건이 단절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고,[98] 인간이 비현실적인 다원적 공간을 출

96) 심치열, 「숙향전 연구」, 『한국언어문학』38, 한국언어문학회, 1996, p.248.
97) 민영숙, 「숙향전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p.38.

입할 수 있는 통로는 바로 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꿈은 天上界로 들어가거나 나오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인공들은 꿈을 통하여 비현실적 세계를 경험하고 꿈을 깬 후 다시 현실 세계로 복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반해 <숙향전>에서는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동일한 선상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숙향전>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 조동일은 <숙향전>의 구조와 서술 방식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숙향전은) 경험적인 영역에서의 일상적인 삶의 초경험적인 영역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줄 모른다는 것으로 긴장을 만들고 풀어나가는 수법을 삼아서, 남성 주인공의 영웅소설에서 볼 수 있는 바와는 다른 구조를 이루었다.[99]

즉, <숙향전>의 남녀주인공들은 천상과 지상의 구획 없이 施惠와 報恩의 과정이 거대한 시공간 속에서 흥미로우면서도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렇게 <숙향전>을 이끌어가는 서사적 논리 위에는 시간, 공간, 관념을 초월하여 근원 소속에 따라 구분되는 이원적 세계관이 철저하게 해체되고 있다.

(1) 지상-천상계의 경계 해체

<숙향전>을 이끌어가는 주요 등장인물들은 거의가 天上界에 소속된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소설의 서사성을 구축하는 핵심요소인 인물 설

---

98) <남염부주지>:①주인공 박생은 과거에 낙방하고 일원론을 지어 이단을 배척했는데, 하루는 거실에서 글을 읽다가 졸게된다.(꿈꾸기 전-현실), ②박생은 명부로 가서 염왕과 문답하고 그곳을 두루 구경한 후에 사자의 안내를 받아 염부를 나온다.(꿈의 세계-비현실), ③박생은 수레가 진흙에 빠져 끌어내다가 깨어나고 후에 병들어 죽는다.(꿈깬 후-현실). 이 외에 <구운몽>에서 고뇌하는 현실의 성진이 꿈속에서 양소유로 환생하여 팔선녀와 함께 온갖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고 꿈을 깬 후에는 현실로 돌아와 세속적 욕망의 추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는다는 구조로 되어있다.

9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94, p.293

정은 작가의 철저한 의도대로 서사체계가 진행되고 있다. 물론 고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인물 설정 자체가 천상적 인물과 지상적 인물로 구분하여 등장시키는 관습이 있다. 그러나 <숙향전>의 경우 비중의 측면에서 볼 때, 天上界 인물에 대한 설정 비율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도 특수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된다.[100]

순수한 천상인	적강한 천상인		순수한 지상인
용왕 용자 후토부인 화덕진군 대성사 부처 이적선 여동빈 두목지 청의동자 구로선	태을 월궁소아 설중매 마고선녀 규성 능허선 부부	이선 숙향 매향 마고할미 장승상 부인 김전 부부	도적 사향 조적 이선의 고모

[표1][101]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숙향전>의 인물 중에는 순수한 地上界의 인물로는 도적과 사향, 조적, 이선의 고모뿐이다.[102] 숙향을 살려준 도적의 경우는 순수한 지상인이긴 하지만 그 속성은 사람을 알아보는 혜안을 지녔기 때문에 사향과는 구별된다. 또한 이선의 고모 경우도 순수한 지상인이긴 하지만 꿈속에서 숙향과 이선의 혼례를 암시받게 되고, 그 암시한 바를 따라 부모 모르게 혼례를 주선한다. 조적의 경우도 그림을 파는 상인으로 이선과 숙향이 만날 수 있도록 고리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숙향을 모함한 사향의 경우는 하늘에서 내려온 중으로부터 벌을 받아 죽는다.

반면, 순수한 천상인은 특히 숙향과 이선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에 도움을

100) 심치열, 앞의 논문, p.248.
101) 심치열, 앞의 논문, p.249 표 참조.
102) <숙향전>은 이원적 인간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작자는 천상사람을 중심으로 소설을 엮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상사람은 천상사람의 부수물이다. <숙향전>에 있어서의 숙명론은 천상사람에게는 천상죄, 지상사람에게는 인과응보라 볼 수 있다. (장홍재, 앞의 논문, pp.465-466.)

주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등장하여 역할을 수행한 후 천상으로 회귀하거나, 이선이 仙藥을 구하러가는 과정에서 만난 신선들이다. 그 반면에 謫降한 천상인들은 謫降한 뒤 예정된 의무와 책임을 끝낸 후에 천상으로 회귀한다.

<숙향전>은 위에서 언급한 등장인물뿐만 아니라 공간적 확대라는 측면에서 철저하게 天上界와 地上界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즉 '이원화 속의 일원화'라는 새로운 시공간을 조성하여 진행하고 있다.[103]

> 왕시 틱긔 잇시ᄆᆡ 싱남ᄒᆞ기를 ᄆᆡ일 츅수ᄒᆞ더니, 그 이듬히 긔츅 ᄉᆞ월 쵸팔일의 황제 숑셔를 명쵸ᄒᆞ여 황셩의 가시고 부인니 혼ᄌᆞ 게시더니, 그날 앗춤의 예 업던 오ᄉᆡᆨ구름이 집을 두로고 긔이ᄒᆞᆫ 향ᄂᆡ 진동ᄒᆞ거날, 부인니 고힛 네겨 집안을 소쇄ᄒᆞ더니, 나 진ᄒᆞ여 호련 긔운니 좃치 못ᄒᆞ거날 침셕의 누엇더니, 이윽ᄒᆞ여 ᄎᆞᆼ 밧게 아름다온 소ᄅᆡ 나고 ᄉᆞ양머리 ᄒᆞᆫ 션녀 두리 드러오며 왈, "ᄯᆡ 느져가오니 즘간 침셕의 누우쇼셔." (중략) 부인니 문왈, "그ᄃᆡ난 엇던 ᄉᆞ람으로 이 더러온 곳ᄃᆡ 와 슈고를 만니 ᄒᆞ고 가려ᄒᆞ난요 졍표코져 ᄒᆞ오니 아직 머물미 엇더ᄒᆞᆫ요" 답왈 "우리난 인간 ᄉᆞ람이 아니라 쳔ᄉᆞᆼ의 ᄒᆡ산ᄒᆞ난 양을 보고 오라 ᄒᆞ시ᄆᆡ 왓습거니와, 이 ᄋᆡ기 ᄇᆡ필은 남양 ᄯᆞ의셔 오날 ᄒᆞᆫ시의 날거시니 빗비 가나이다." (이대본, pp.69-70)

위의 인용문은 이선의 탄생을 알리는 내용으로 서사적 전개상으로는 작품의 중반에 위치하고 있다. 이선의 탄생 때에도 선녀가 나타나 해산을 돕는 즉시 숙향에게 간다고 서술되어 있다. 이는 서술자의 의도가 천상에서 적강하는 남녀 주인공은 두 사람이 저지른 천상의 득죄로 그 벌로서 진행되는 적강이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각기 실현되고, 그들의 출생 또한 동시성 위에서 진행됨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산을 돕는 천상인도 등장하지만 독자가 인식할 때는 '낯설지 않은'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다가온다.

> 니랑 왈 "녯말의 ᄒᆞ여시되, 일홈 모로난 음식은 먹지말나 ᄒᆞ여시니, 할미난

103) 심치열, 앞의 논문, p.249.

알거든 속이지 말나" 할미 쇼왈 "유리졉시의 노힌 것슨 양관초오니 동히용왕의게 어더 왓고, 산호졉시의 노힌 것슨 금광초니 영쥬 구로션의게 어더 왓고, 져 호박졉시의 노힌 것슨 신광초니 천틔산 마고션녀의게 어더 온 것시오, 져 딕모졉시의 노힌 것슨 쳔광쵸니 만슈산 신션의 집에 가 어더온 것시라. 초초ᄒᆞ나 먹어 ᄉᆞᆼᄒᆞ지 안일 거시니 의심마옵고 먹어뵤쇼셔" 니랑 왈 "할미 말이 부허ᄒᆞᆫ 듯 ᄒᆞ니 실ᄉᆞᆼ을 알지 못ᄒᆞ리로다" 함미 소왈 "져 산호졉시의 담은 것슨 반도오니, 요지 셔왕모 집의 가 어더왓나이다" (이대본, pp.79-80)

이 대목은 이선이 숙향을 만나기 위해 마고할미 집에 도착하자, 마고할미가 대접하기 위해 내놓은 양관초, 금광초, 신광초, 쳔광초, 반도라는 天上界에서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다. 그러함에도 모두 地上界와 동일선상의 공간에서 그대로 수용된다. 꿈도 아닌 지상의 현실계에서 이러한 상황을 묘사한다는 것은 인간의 잣대에 따른 공간을 과감히 해체시켜 독자와의 친연성을 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당대의 독자들은 이러한 신비스러운 설정에 도취되어 대리만족에 의한 체험이 가능하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작품 전반에서 사용되는 천상적 공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ᄒᆞᆫ 부인이 머리의 화관을 쓰고 몸의 칠보장복을 닙고 교의에 나려 마ᄌᆞ 니르ᄃᆡ
· 이 ᄯᅩᄒᆞᆫ 명ᄉᆞ계오 쳡은 후토부인이라
· 석일 ᄉᆞ히 용왕이 슈졍궁의 모다 전치할 ᄉᆡ
· 부인이 몬져 가시면 득달키 어려우니 우리 년엽쥬를 타시면 순식간의 가실 거시오
· 나는 쳔상으로셔 온 즁이러니 상제 명으로 승샹집 옥셕을 갈히려 왓시니
· 벽녁소릭 요란ᄒᆞ며 공중의셔 동회ᄀᆞᆺ튼 불덩이 나려와
· 노인이 소ᄆᆡ로셔 흥션을 ᄂᆡ여 부츠며 무ᄉᆞᆫ 진언을 ᄒᆞ니 화염이 범치 못ᄒᆞ는지라
· 나ᄂᆞᆫ 남천문 벗긔 화덕진군이어니와
· ᄌᆞ기반의 오ᄉᆡᆨ 졉시 ᄃᆞ셔슬 노핫시되 인간의셔 못보던 ᄇᆡ라
· 나ᄂᆞᆫ 텬틔산 마고션녀로셔 낭ᄌᆞ를 위ᄒᆞ여 나려 왓더니
· 그 션관이 드러 가더니 뇡왕이 나오신다 ᄒᆞ여 슈중이 진동ᄒᆞ며
· 봉ᄂᆡ산은 녕산이라 ᄐᆡ을인들 엇지 상제 명 업시 출입ᄒᆞ리오

· 봉ᄂᆡ산의 약 어드라 가노라
· 문득 청의 동ᄌᆡ 공즁으로셔 나려와
· 져 산이 봉ᄂᆡ산이니 구류션을 ᄎᆞᄌᆞ 약을 구ᄒᆞ라
· 공이 ᄇᆡ의 오르니 발셔 뇽궁의 왓ᄂᆞᆫ지라
· 구름을 타고 공즁으로 올나가니

위의 인용문은 <숙향전>에 서사 전개 중의 일부분으로, 모두 천상적인 공간을 묘사한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처럼 명사계, 용왕이 거처하는 수정궁, 천태산, 남천문, 봉래산 등 많은 天上界의 장소들이 등장한다. 더구나 이 모두는 地上界에서의 현실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것으로, 꿈과는 성격이 대별된다.

이러한 구성적 매력은 바로 작가의 역량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의식의 전환을 과감히 실행하여, 당대 독자들에게 호기심을 통한 감흥을 느끼게 한 것은 작가의 사고와 의식의 자유로움에서일 것이다.[104] 이처럼 <숙향전>에서 전개되는 천상적인 공간들은 특별한 여과장치 없이 독자들에게 다가와 순연한 의식세계에 따라 진행되는 초월을 통해 대리만족을 추구하게 하였다.

(2) 전생-현세간의 경계 해체

<숙향전>의 서사구조의 또 다른 특성은 天上界적 시간과 공간 관점이 地上界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생과 현세간의 경계를 두지 않고 사건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고소설이 전생의 문제를 윤회나, 謫降의 형식을 통해 소재적인 수준에서 활용해오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이러한 서사구조가 더욱 부각되고 있어 작가의 철저한 의도에 의한 결과로 파악된다.[105]

地上界와 仙界의 이와 같은 끊임없는 상호 연관에 따라 등장인물들이나 독자들은 지상의 시간과 천상의 시간 경계선을 의식하지 못한다. <숙향전>에서

104) 심치열, 앞의 논문, pp.250-251 참조.
105) 심치열, 앞의 논문, p.252.

의 시간은 이처럼 대립법적 구조로 드러나기 때문에 작품에서 전개되는 사건은 연대기적 순서에 따른 因果律이나 시간적 秩序가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106]

> 듸셩ᄉᆞ의 드러가 두로 귀경ᄒᆞ고 난간을 의지ᄒᆞ여 호련 죠우더니, 비몽간의 부체 와 이르되, “오날 셔왕모 요지의 모와 잔치ᄒᆞᆫ다 ᄒᆞ니, 나와 ᄒᆞᆫ가지 가 귀경ᄒᆞᄌᆞ”ᄒᆞ거날, 션니 깃거 ᄉᆞ례ᄒᆞ고 ᄯᆞ라ᄒᆞᆫ 곳의 다다르니, 연화 만발ᄒᆞᆫ 가온ᄃᆡ 누각이 ᄒᆞ날의 다인 듯 ᄒᆞ고 지동과 문충이 인간의 보지 못ᄒᆞᆫ ᄇᆡ라. (중략) 니션 왈 “위의 엄숙ᄒᆞ니 동셔를 분별치 못할가 ᄒᆞ나이다.”붓체 웃고 ᄉᆞᄆᆡ로셔 ᄃᆡ초 갓ᄒᆞᆫ 것슬 ᄂᆡ여쥬며 왈 “이것슬 먹으면 ᄌᆞ연 알니라” 션니 바다먹으니, 과연 쳔승 ᄐᆡ을셩으로 득죄ᄒᆞ고 인간의 귀양온 일을 역역히 알네라. (중략) 붓체 먼져 드러가거날, 션니 미좃ᄎᆞ 드러가 옥뎨게 슉빅ᄒᆞ고 모든 션관게 뵈오니, 모다 반기며, 숑뎨 가라ᄉᆞᄃᆡ “ᄐᆡ을아, 인간 ᄌᆡ미 엇더ᄒᆞ던냐? 네 소ᄋᆡ를 ᄎᆞᄌᆞ본다?” (중략) 션니 국궁ᄒᆞ여 바드며 그 션녀를 누쥬어 보니, 션녀 붓그러ᄒᆞ여 급히 도라셜 제, 손의 ᄭᆡ엿던 옥지환의 진쥬 ᄲᆞ져 니션의 압히 ᄯᅥ러지거날, 션니 가만니 ᄒᆞᆫ 손으로 줏더니, ᄃᆡ셩ᄉᆞ 즁들리 ᄌᆡ식을 ᄃᆡ려ᄒᆞ고 셕종을 울니거날, 그 쇼ᄅᆡ에 놀라 ᄭᆡ니 요지 경ᄀᆡ눈의 암암ᄒᆞ고 풍유쇼ᄅᆡ 귀의 징징ᄒᆞ며 손의 과연 진쥬 ᄒᆞᆫ나흘 쥐여거날, 고힛 네겨 즉시 글을 지어 몽ᄉᆞ를 긔록ᄒᆞ고 (이대본, pp.73-75)

위의 인용문은 이선이 꾼 요지의 세계이다. 대성사 부처의 도움으로 요지의 세계를 구경하게 되고, 꿈 속에서 '대추같은 것'을 먹고 전생의 일을 기억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선의 경우 전생 기억에 대한 회복은 天上界의 이해를 위해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꿈의 내용은 꿈을 깬 후에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선 자신이 천상인이었다는 사실도 지상의 삶에서도 유지된다. 더구나 이선의 경우는 숙향이 떨어뜨린 '진주'라는 증거물까지 제시된다.

106) 양혜란, 앞의 논문, p.116.

숙향이 짓거 청됴를 ᄯᆞ라 ᄒᆞᆫ 곳ᄃᆡ 다다르니, ᄇᆡᆨ옥연 가온ᄃᆡ 구실ᄃᆡ를 뭇고 그 우의 누각을 지어시되, 산호현판의 금ᄌᆞ로 셔왕모 집이라 셧거날, 그 집이 광치 찰란ᄒᆞ며 엄위ᄒᆞ여 바로 보지 못ᄒᆞ며, 감히 드러가지 못ᄒᆞ여 문 밧게셔 쥬져ᄒᆞ더니, 션관션녀 학도 타고 혹 봉도 타고 ᄉᆞᆼᄉᆞᆼ이 드러갈제, ᄎᆡ운니 어린 곳의 녀셧 용이 황금 슈ᄅᆡ를 ᄯᆞ어오니, 이난 옥뎨 타신 연일네라.(중략)소ᄋᆡ 명ᄒᆞᄉᆞ 반도 두 ᄀᆡ와 게화 ᄒᆞᆫ 가지를 ᄐᆡ을을 쥬라 ᄒᆞ시거날, 소ᄋᆡ 명을 밧ᄌᆞ와 마지못ᄒᆞ여 ᄒᆞᆫ 손의 반도를 옥반의 담아 들고 게화를 쥐고 ᄐᆡ을을 쥬니, 그 션관니 두 손으로 바드며 이윽히 소ᄋᆡ를 눈쥬어 보거날, 소ᄋᆡ 그 모든 즁의 붓그러워 몸을 도로힐 제, 숙향의 ᄭᆡᆫ 옥지환의 진쥬 ᄯᅥ러지거날, 숙향이 줏고져 ᄒᆞ더니, 그 션관니 발셔 손의 쥐여거날, 숙향이 붓그러오물 익이지 못ᄒᆞ여 젼의 오르고져 ᄒᆞ더니, 할미 슐을 팔고 오며 이르되, "봄날이 곤ᄒᆞ나 무슴 잠을 그ᄃᆡ도록 ᄌᆞ난고"ᄒᆞ며 ᄭᆡ오거날, 숙향이 할미 쇼ᄅᆡ에 놀ᄂᆡ ᄭᆡ니 남가일몽이라. (이대본, pp.61-64)

위와 같이 숙향도 요지의 세계를 꿈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태을인 이선을 만난다는 내용으로, 이선과 똑같은 꿈을 꾸게 된다. 하지만 이선이 자연적인 각몽의 한 형태로 '그 절 저녁 북소리에 놀나서' 깨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반해 숙향은 '마고할미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깨어난다. 이는 마고할미의 조정에 의해 극적인 상황자체에서 각몽하도록 미리 설정된 것이다.

이선은 꿈을 깬 후 자의에 의해 요지의 미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체험을 글로 짓는 반면에, 숙향은 마고할미가 繡족자를 권유하여 요지의 경치를 繡로 놓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마고할미는 이선과 숙향이 요지의 세계에서 이미 상면했음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처럼 꿈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여 펼쳐지는 내용 속에는 꿈 이상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며, 시간 소급에 따라 자신들의 신분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

"션녀 인간의 나려와 더러온 물을 만니 먹어시ᄆᆡ 졍신니 밧귀여 젼ᄉᆡᆼ일을 모로나이다." 션녀를 명ᄒᆞ여 경ᄋᆡᆨ을 드리라 ᄒᆞᆫᄃᆡ, 션녀 만호잔의 호박ᄃᆡ를 밧쳐 잇실 갓탄 것슬 부어 드리거날, 바다 먹으니 맛신 졋맛 갓고 가ᄌᆞᆼ 향긔롭더라.

먹은 후의 쳔ᄉᆞᆼ 일과 인간의 나려와 부모 일코 바ᄌᆞᆼ이며 고ᄉᆞᆼᄒᆞ난 일을 일일이 알고, 몸은 비록 아ᄒᆡ나 마음능 어런니라. (이대본, p.16)

선녀 웃고 왈 “부인니 인간의 나려와 더러ᄂᆡ를 만니 쉬여 게시고, 인간 음식을 만니 먹어시ᄆᆡ 우리를 몰나보시도소이다” 옥호를 긔우려 유리잔의 이실 갓ᄒᆞᆫ ᄎᆞ를 귀우려 쥬거날, 슉향이 바다 마시니 그제야 월궁소아로 ᄉᆞᆼ데 압ᄒᆡ 근시ᄒᆞ다가 ᄐᆡ을션관과 셔로 글 지어 화답ᄒᆞ고 옥데의 월련단을 도적ᄒᆞ여 쥰 죄로 인간의 젹ᄒᆞ하여 고ᄉᆞᆼᄒᆞ날 일과, 그 두 아ᄒᆡ난 월궁의셔 부리던 시비쥴 알고 (이대본, pp.40-41)

위의 두 인용은 모두 숙향의 경험담이다. 첫 번째 인용은 青鳥의 도움으로 天上界 인물인 후토부인을 만나서 전생의 기억을 회복하게 되는 장면이다. 이것은 현실 상태에서 ‘꿈’이라는 매개 현상 대신 '경액'이라는 매개물로 인한 것이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번째 인용의 경우도 '이슬같은 차'를 받아 마신 후 천상의 기억을 하게 된다. 이처럼 숙향은 작품 전반에서 두 번에 걸쳐 전생의 기억을 회복하여 천상 세계를 경험하는 데, 한번은 부모를 잃은 5세의 어린나이 때 경험이고, 다른 한번은 장승상댁에서 10년의 인연을 채운 뒤 사향의 모함으로 표진강물에 자결하려고 할 때인 15세의 경험이다. 이로 볼 때, 숙향에게 전생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는 설정은 숙향이 반드시 가장 절망스러울 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의 두 과정에서 각각 전생인 천상의 기억이 상실되어가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흥미롭다. 또한 천상의 세계도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공간적, 시간적 확대를 꾀하고 있다.

슉향이 문왈, “ᄌᆞᆼᄉᆞᆼᄃᆡᆨ이 예셔 얼ᄆᆡ나 ᄒᆞ니잇고?” 부인 왈, “예셔 일쳔 삼ᄇᆡᆨ니오나 그난 염여마르쇼셔.”ᄒᆞ고 이러나 금분의 심은 나무 여름 연 것 ᄒᆞᆫ 가지를 썩거시고 나와, ᄇᆡᆨ녹을 명ᄒᆞ여 그 나뭇가지를 쌀의 걸고 슉향다려 니라되, “이 ᄉᆞ심을 타시면 비록 만리라도 슌식의 가리니, 나리시난 곳ᄃᆡ 시ᄌᆞᆼᄒᆞ실

거시니. 이 나무 열ᄆᆡ ᄯᆞᆫ 잡슈쇼셔."(중략) ᄒᆞᆫ 곳ᄃᆡ 다다르니 그 ᄉᆞ심이 ᄂᆡ여 셔거날, 슉향이 나려보니 ᄇᆡ곱푸거날, 그 나무 열ᄆᆡ를 ᄯᆞ먹으니, ᄇᆡ는 무르되 쳔ᄉᆞᆼ 일이 아득ᄒᆞ고 인간 고ᄉᆞᆼ만 ᄉᆡᆼ각ᄒᆞ니, 도로 아ᄒᆡ ᄆᆞ음 되어 도라보니 (이대본, pp.20-21)

"발셔 다 왓ᄉᆞ오니 부인은 ᄇᆡ의 나려 동ᄃᆡ희로 향ᄒᆞ여 가소셔. ᄌᆞ연 구할 ᄉᆞ람 잇ᄉᆞ오리다."ᄒᆞ고 구실 갓탓 것 두 ᄀᆡ를 쥬며 왈, "가시다가 시중ᄒᆞ실 거시니 ᄌᆞᆸ슈소셔."ᄒᆞ고 셔로 니별ᄒᆞ기를 설워ᄒᆞ더라. 슉향이 ᄇᆡ의 나려 도라보니 발셔 간ᄃᆡ 업난지라, 슉향이 실푼 마음을 졍치 못ᄒᆞ여 눈물을 ᄲᆞ리고 동ᄃᆡ희로 향ᄒᆞ여 가더니 ᄇᆡ 심히 곱푼지라, 션녀 쥬던 동졍귤 갓탄 것슬 먹으니, ᄇᆡ 부르되 쳔ᄉᆞᆼ 일은 다 잇치고 인간 고ᄉᆞᆼ만 ᄉᆡᆼ각히더라. (이대본, pp.44-45)

위의 두 인용문은 천상의 기억이 상실되는 과정으로 서사적 전개상 약 십 년이라는 시차가 있다. 천상의 기억을 상실한 후 졸게 됨으로 이 역시 꿈이 아니다. 또한 천상의 기억을 상실할 때, '배고프거늘'이라는 상황 설정을 볼 때,[107] 이는 반드시 먹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리적 욕구를 이용하여 빨리 먹게끔 유도하여 천상의 기억을 상실하도록 하기 위한 은밀하고도 치밀한 장치이다. 다시 말하면 도선사상이 곁들여 있는 작품에서 조차 흔치 않은 설정으로 '천상의 기억 회복' 및 '천상의 기억 상실'이란 구조를 숙향의 경우는 전생 기억에 대한 '회복-상실'의 관계인 열고 닫힘의 관계 속에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결국 '열매'나 '동정귤'을 먹고 시장기를 달래면서 자연스럽게 현세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로 볼 때, <숙향전>에서는 전생과 현세가 동일선상에 있으며 그 어떤 매개물에 의해 필요에 따라 두 세계를 왕복할 수 있는 경계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108]

---

107) <숙향전> 역시 여느 고소설처럼 天上界와 地上界의 인물 설정에서 이분적 구도 속에 짜여진 작품으로, 이러한 구도는 그 자체에 이미 관념적인 의식이 개재해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주인공이 天上界와 地上界를 오고가는 과정에서 배고픔의 요소가 끼여들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신재홍, 앞의 논문, p.520)

108) 심치열, 앞의 논문, p.255.

션관이 쇼왈, “틱을이 발셔 쳔ᄉᆞᆼ 일을 다 이졋도다.” 동ᄌᆞ를 명ᄒᆞ여 ᄎᆞ를 드리라 ᄒᆞ니, 동ᄌᆞ ᄎᆞ를 권ᄒᆞ거날, ᄉᆞᆼ셔 바다먹으니 그제야 쳔ᄉᆞᆼ 틱을셩으로 ᄌᆞ죄ᄒᆞ여 셜즁ᄆᆡ와 부뷔 되엿든 일과, 좌즁의 잇난 션관니 다 ᄒᆞᆫ가지 노던 버진쥴 알고 눈물지어 왈, “ᄂᆡ 죄 즁ᄒᆞ여 인간의 나려왓서니와, 그ᄃᆡᄂᆡ난 무ᄉᆞ이 게시되, 능이션은 어ᄃᆡ 가시며 셜즁ᄆᆡ난 어ᄃᆡ 잇난요?” (이대본, pp.209-210)

위의 대목은 이선이 황후를 위해 선약을 구하러 갔을 때 벌어진 상황으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전생의 기억이다. 이선은 숙향과는 달리 절박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천상의 기억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다. 즉 이선의 경우는 전생의 일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정보를 얻기 위한 일환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요지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배우자가 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듯이, 이 부분에서는 전생의 배우자가 설중매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다. 이렇듯 전생의 부부였던 설중매에 관한 정보를 일깨우는 것으로 오히려 선약 탐색담이 퇴색해 버린 듯하다. 다시 말하면 天上界에서 경험하는 과거의 전생이란 시간과 공간을 모두 확장시켜 완벽한 초월 세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염원이 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러한 시공간적 배경은 흥취와 낭만이 깔려있는 '흥미' 그 자체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109]

이처럼 현세는 전생의 연장이라는 시간적 · 공간적 인식 위에 전생의 이야기와 현세의 이야기가 자연스러움 속에 연속적이고 동질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작품의 시공간성을 무한 확장시켜 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생의 천상에서의 사건이 시발이 되고 그 중간 이야기로서 적강인인 주역들이 펼치는 사건이 중간 과정으로 펼쳐지고, 종결은 승천함으로써 지상의 삶이 지닌

109) 그러나 조용호(앞의 논문, pp.257-258)는 "仙界는 이승에 대비되는 他界이므로 곧 죽음과도 통하는 無意識의 深層을 뜻한다. 이선은 求藥 旅行으로 代喩되는 무의식의 심층을 통과하면서 擬似-죽음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로 의미화 된다. 그리하여 황태후의 병을 치료하는 醫巫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는 작품의 의식 세계를 지나치게 비약시킨 듯하다.

시한성을 다시 영원성으로 이어가고 있다. 또한 천상적 존재가 지상의 시간 속에 침투하여 지속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작중 인물들이 체험하는 지상의 시간과 천상의 시간의 두 층위 사이는 구별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된다.[110]

결국 <숙향전>에서의 천상계적 시간과 공간 관점이 지상계에도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생과 현세간의 경계 역시 해체되며 사건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사람-동물간의 경계 해체

<숙향전>에는 많은 동물들이 등장하는데 각기 역할 분담을 분명하게 맡고 있음이 그 특징이다. <숙향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면서 작품 전반에 걸쳐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동물은 거북이다. 거북은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전에게 은혜를 입은 후, 김전, 숙향, 이선에게 계속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天上界와 地上界에 걸쳐 작품 전반에 계속 등장하면서 報恩한다. 작가가 거북을 작품에서 단순 행위자 이상으로 부각시켜 전체 작품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일상적인 관념에서 탈피하여 천상적 존재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작가는 인간과 동물을 하나의 동일한 생명집단의 한 개체임을 인식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 긤젼니 졍신을 ᄎᆞ려 언덕의 ᄭᅱ여나리며 그것실 보니, 몸은 물속의 감초고 머리만 ᄂᆡ여난ᄃᆡ, 이마의 ᄒᆞ날 쳔ᄯᆞ 분명ᄒᆞ거날, 긤ㅁ젼니 구ᄒᆞᆫ 은혜를 ᄉᆞ례코져 할 제, 그것시 문득 입으로 안ᄀᆡ 갓탄 것슨 토ᄒᆞ니 긤젼의 압ᄒᆡ 무지게 갓탄 것시 잇거날, 긤젼니 더옥 황겁ᄒᆞ여 무슈이 졀ᄒᆞ더니, 문득 무지게난 업고 다맛 제비알 만ᄒᆞᆫ 구실 두ᄀᆡ 노혀시되, 빗치 찰란ᄒᆞ고 은은니 글ᄌᆞ 씨여시니, ᄒᆞᆫ나은 목슘 슈ᄯᆞ요 ᄒᆞᆫ나은 복 복ᄯᆞ어날, 긤젼니 문득 ᄉᆡᆼ각ᄒᆞ되, '이난 반다시 반ᄒᆞ슈의 노흔 거복이 은혜를 갑노라고 나를 구ᄒᆞ고 이 구실을 쥬고 가도다'

110) 심치열, 앞의 논문, p.255-256 참조.

ᄒᆞ고 물을 향ᄒᆞ여 무슈이 ᄉᆞ례ᄒᆞ고 집의 도라오니 (이대본, p.3)

위의 인용문은 거북이 구슬을 주며 報恩하는 장면이다. 거북이 제공하는 구슬은 김전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총체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후에 거북은 김전의 딸인 숙향과 이선에게까지 報恩하는 것이다.

이처럼 작품 초두에서 이미 이 작품의 내포적 주제의 설정을 '거북'이라는 동물에 의미를 두고, 이를 바탕으로 서사 전개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報恩의 뜻이 담긴 구슬은 작품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報恩의 의도를 더욱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ᄂᆞᆼ즈 망극ᄒᆞ여 니랑으게 죽난 연고나 긔별코져 ᄒᆞ되, 옥즁의 필묵도 업고 젼할 ᄉᆞ람도 업셔 혼즈 안즈 우니, 동방이 발가오며 청됴 나라와 낭즈 무릅 우의 안즈 실피 울거날, 낭즈 그 ᄉᆡ를 보고 손ᄉᆡᆼ락을 씨무러 피를 ᄂᆡ여 집젹숨ᄉᆞᄆᆡ의 원통ᄒᆞᆫ ᄉᆞ졍으로 글을 지어 그 ᄉᆡ 다리의 ᄆᆡ고 (중략) 문득 청됴 나라와 닐아의 무릅 위의 안즈 울거날, 고이ᄒᆞ여 ᄌᆞ세 보니 다리의 집ᄁᆞᆫ ᄆᆡᆫ 것시 뵈거날, 글너 보니 낭즈의 편지라. (이대본, pp.112-113)

이 대목은 숙향이 옥중에 갇혔을 때에, 청조가 나타나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선에게 편지를 통해 알려주는 장면이다.[111] 여기서도 본격적인 원조자적 기능을 감당하는 동물을 인간과 함께 등장시켜 신이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삽살개를 주요 행위자로 부각시키기도 한다.

낭즈 의지할 곳 업셔 ᄀᆡ로 벗을 ᄉᆞᆷ아 잇더니, ᄒᆞ로난 달은 발고 ᄌᆞᆷ이 업셔 ᄉᆞ충을 의지ᄒᆞ여 우다가 ᄒᆞᆫ 글을 지어 셔안 위의 놋코, ᄌᆞ고 ᄭᆡ여보니 글도

111) 고전소설에서 새의 등장은 자주 있으나, 특히 「육미당기」의 기러기는 벼슬까지 부여받으며, 인간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유지한다. (심치열, 앞의 논문, p.258)

업고 ᄀᆡ도 덥거날,(중략) 니랑이 ᄐᆡ학의 잇셔 낭ᄌᆞ의 소식을 몰나 쥬야 침식이 불편ᄒᆞ더니, 문득 바ᄅᆡ보니 쳥즙ᄉᆞ리 니랑을 향ᄒᆞ여 나난다시 오거날, 이윽키 보니 낭ᄌᆞ의 집 긔라. “너난 귐싱이라도 나를 와 보곳만은, 나는 ᄉᆞ라이로되 낭ᄌᆞ를 보지 못ᄒᆞ니 도로혀 너만 못ᄒᆞ도다.”ᄒᆞ며 실허ᄒᆞ니, 그 ᄀᆡ 입으로 비단 ᄭᆞᆺ틀 토ᄒᆞ거날, 보니 낭ᄌᆞ의 필젹이라. (이대본, pp.128-129)

숙향이 마고할미를 잃고 슬픔에 잠겨 홀로 자신의 처지를 글로 쓰다가 조는 틈을 타서 삽살개가 그 글을 삼켜 이선에게 갖다 주는 장면이다. 더구나 주인인 숙향이 시킨 것도 아닌 삽살개가 스스로 판단하여 이선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는 인간보다도 더 슬기롭고 현명한 영물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사람과 버금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낭ᄌᆞ 제물을 갓쵸와 제문 지어 제ᄒᆞ고, 제를 맛치ᄆᆡ 즙술ᄀᆡ 분ᄉᆞᆼ의 바린 음식을 먹으니, 부인니 ᄀᆡ 등을 만지며 왈, “너 곳 아니면 ᄂᆡ 엇지 ᄉᆞ라시리요? 셕ᄉᆞ를 ᄉᆡᆼ각ᄒᆞ니 실푸물 금치 못ᄒᆞ리로다.” 그 ᄀᆡ ᄯᆞ흘 ᄯᆞᆯ허 비벼ᄒᆞ거날, 부인니 허빈 곳을 보니 글ᄌᆞ 되어거날 ᄒᆞ여시되 “인연니 진ᄒᆞ여시니 나난 예셔 써러지나이다.”ᄒᆞ엿더라. 부인니 ᄃᆡ경 왈, “ᄂᆡ 너로 더부러 ᄒᆞᆫ가지 고ᄉᆞᆼᄒᆞ다가 이제 네 먼져 가려ᄒᆞ니, 실푸다! 네 은혜를 엇지 다 갑푸리요?” 그 ᄀᆡ 할미 분묘를 가라치고 부인게 두 번 졀ᄒᆞ고 셔너 발거럼의 부인을 도라보고 쇼ᄅᆡ를 크게 지르고 가니, 문득 거문 구름이 이러나 ᄀᆡ 션 곳의 두로 ᄉᆞ더니, 그 구름이 거드치며 ᄀᆡ 간ᄃᆡ 업거날 (이대본, pp.152-153)

또한 위의 인용문은 숙향과 삽살개의 영원한 이별 장면인데 다른 작품에서는 보기 힘든 설정으로, 삽살개는 숙향과 헤어지는 인사를 손수 땅바닥에 끄적거려서 글로 표현하고는 구름 속에 휩싸여 사라진다. 이로써 삽살개와의 인연은 끝을 맺게 된다. 다시 말하면 숙향의 고난의 끝을 알리는 암시이기도 하다. 이러한 설정은 소설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동시에 작품의 활력을 불어넣는 기능을 한다.

거북과 청삽살개 외에도 숙향은 많은 동물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서사적 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황새 한쌍이 날개로 숙향을 덮어줌
· 까치가 인도함
· 잔나비가 삶은 고기를 물어다 줌
· 청조가 물고 온 꽃봉오리를 받아 먹음
· 청조의 인도로 명사계의 후토부인을 만남
· 白麗이 남군땅 장승상 집 동산에 내려놓고 사라짐
· 표진강에서 빠졌을 때 거북의 인도로 용왕궁에 가게 됩
· 옥에 갖힌 사실을 청조가 이선에게 알려줌
· 마고할미의 죽음을 슬퍼한 숙향의 필적을 청삽살개가 이선에게 전해줌
· 청삽살개가 할미의 무덤을 정해줌
· 청삽살개가 숙향에게 하직 인사의 글을 남기고 사라짐

위와 같이 동물들의 등장은 주동적인 인물과 결탁하여 부수적인 서사체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정은 인간과 동물의 경계를 철저하게 해체시키고 있다.[112] 인물들만으로 사건의 진행을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작품과는 달리 <숙향전>에서는 거북, 청조, 개 등을 보조적 행위자로 등장시켜 작품의 서사적 진행을 돕게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초월주의적 작품세계를 창출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까지 <숙향전>의 서사적 특성으로서의 초월주의적 지향의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숙향전>은 이처럼 숙명론에서 더 나아가 지상계-천상계, 전생-현세, 사람-동물의 경계를 해체하고 이분법적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작품임을 알 수 있다.

112) 심치열, 앞의 논문, p.259 참조.

Ⅴ. 결론

이상으로 본 연구는 <숙향전>의 서사구조와 지향의식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본론의 전개 순서에 따라 검토한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天定原理를 중심으로 한 <숙향전>의 서사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숙향전>의 전체 순차단락을 제시하여 서사구조를 살피고, 이 순차단락을 바탕으로 하여 숙향의 삶의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숙향의 삶은 왕균의 예언과 天上界 존재들의 발화 내용과 같이 천명에 의해 그대로 관철되고 있으며, 이는 이선은 물론 작품에 등장하는 다른 천상적 존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天定原理에 따른 숙향의 삶은 다섯 가지 厄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는데, 이러한 厄의 발생과 해결의 구조는 결국 숙향이 厄을 겪음으로써 전생죄를 속죄하고 천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厄의 전 단계에서 숙향의 순환적인 삶의 둘레에 이선의 고리가 연결되면서 서사구조의 중심이 이선으로 이동해 간다. 여기서 이선의 등장은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다. 이선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고행은 선약 탐험으로 이어지고, 선약 탐험에서 이선은 총체적인 자아를 확인하여 천상으로의 복귀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상에서의 모든 인간관계 및 삶은 이미 천명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확고히 인식케 하여 결과적으로 <숙향전>은 天定原理의 지상적 실현이라는 관념이 서사구조와 긴밀히 결합되면서 전개된 작품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Ⅲ장에서는 <숙향전>의 또 다른 구조적 특징으로 드러나는 施惠-報恩 구조의 諸樣相과 이를 통해 드러나는 우리 선인들의 세계인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숙향전>의 施惠-報恩 구조는 厄 중심의 사건을 해결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작품 서두에서부터 설정되어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施惠-報恩의 諸樣相으로 우선, 施惠-報恩의 상호 작용 단락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주인공 탄생 이전에 맺어진 김전과 거북간의 施惠-報恩 관계가 당대에서 끝나지 않고 후대에까지 그리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까지 동원되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또한 報恩의 소재로 거북이 준 구슬이 매개 작용을 하는 단락을 묶어서 그 기능을 살펴보았다. 거북이라는 동물에 의미를 두고 거북과의 施惠-報恩 관계뿐만 아니라, 報恩의 뜻으로 준 구슬이 작품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報恩의 의도를 강조하며 사건 전개가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천상인과 동물들의 구원과 숙향이 되갚는 행위로 발전한 단락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숙향이 원조자들의 도움을 받는데서 끝나지 않고 일일이 報恩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작가의 報恩觀念이 철저히 개입되어 서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施惠-報恩의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變身 모티프를 지적하였는데, 이 역시 <숙향전>의 施惠-報恩의 기본 구도를 보다 철저히 해주면서 그 구도 속에 포괄되는 모습을 띠고 있었다.

이처럼 <숙향전>에 施惠-報恩 현상이 하나의 구조적 골격으로서 드러나는 데에는 우리 선인들이 근원적 세계관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이를 선인들의 精靈崇拜思想과 未分的 사고방식 측면에서 해명하고자 했다. 요컨대 <숙향전>에는 精靈崇拜 관념과 함께, 용이나 거북 등의 異物들을 의인화해서 인간들의 지척에서 서로 구원하고 보답하는 이야기를 일차적으로 수용하여 <숙향전>의 한 줄기를 형성한 작가와, 그러한 이야기를 적극 수용했던 수용자들의 심리적 근저에는 동물과 인간은 원래 다르지 않고 同質的이라는 관념, 모든 존재들은 同一根源性을 가진다는 未分的 관념이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Ⅳ장에서는 <숙향전>의 지향의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1절에서는 天定原理의 실현으로서의 숙명론적 지향의식을 고찰해 보았다.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숙향전>은 天命에 따른 삶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은 숙명론이 <숙향전>을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서 숙명이란 일반적으로 타고난 운명,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정해진 운명을 뜻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숙명론을 단순히 被動的 運世主義나 諦念的 現實認識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숙명론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다. 즉 숙명론을, 어찌할 수 없이 순응해야만 하는 運命 정도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삶의 原理이자 順理로 해석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숙명론을 삶의 原理이자 順理로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할 하나의 가치가 될 수 있다. 결국 <숙향전>의 숙명론은 당대 삶의 원리를 絶對的이고도 神聖的인, 그리고 根源的인 存在者를 통해 傳言함으로써 그 權能性을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내면화시켜 바람직한 삶의 이치를 추구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지향의식이라 할 수 있다.

2절에서는 서사적 특성으로서의 초월주의적 지향의식을 검토해 보았다. <숙향전>은 숙명론에서 더 나아가 시간, 공간, 관념의 경계를 해체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인식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았다. 천상과 지상이 이어져 있거나 지척간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고, 현세는 전생의 연장이라는 시간적 인식과 공간적 인식 위에 전생의 이야기와 현세의 이야기가 자연스러움 속에 연속적이고 동질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숙향이 많은 동물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에서 사람과 동물의 경계를 해체하고 이분법적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작품으로 볼 수 있었다.

<숙향전>을 이끌어가는 주요 등장인물들에게서도 天上界와 地上界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거의가 天上界에 소속된 인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러한 천상인물들은 숙향과 이선이 고난에 처해 있을 때마다 현세에 나타나 도움을 준 후 다시 천상으로 회귀한다. 그러나 이처럼 지상과 천상이 이어져 있거나 지척 간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지상과 천상의 二元性이 전제로 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

이다. 지상과 천상은 二元的인 것이지만 당대인들은 지상과 천상을 근원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판단된다.

결국 <숙향전>에는 이미 지상과 천상의 경계가 초극되는 모습, 즉 일상적 담론 속에 천상적 속성이 서로 엇섞이는 면모가 다각도로 그려져 있었다.

한편으로 이러한 초월주의적 지향의식을 중세적 관념주의나 비과학적 사고의 산물로 치부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근대적 · 과학적 세계관의 협소성을 비판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숙향전>은 삶의 총체성을 사유하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서사화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숙향젼 ᄉᆞᆼ하>, 필사본, 필사 연대 미상, 이화여대도서관 소장.
<숙향젼 권지단>, 필사본, 필사 연대 미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소장.
일연, 『삼국사기』권13, 「고구려본기」1.
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한국구비문학대계』8-14, 1980-1988.

2. 단행본

고경식, 「고려시대 전 연구」, 『고려시대 한문학 연구』1, 집문당, 1995.
김균태, 「전문학」, 『한국고전소설론』, 한국고전소설편찬위원회편, 새문사, 1990.
김기동, 『한국고전소설개론』, 대창문화사, 1956.
김미란, 『고대소설과 변신』, 정음문화사, 1984.
김진영 · 차충환 편, 「숙향전의 구조와 세계관」, 『숙향전』, 민속원, 2001.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집문당, 1981.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연사, 1939.
박용식, 『고소설의 원시종교사상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6.
성현경, 「숙향전론」, 『한국옛소설론』, 새문사, 1995.
임성래, 「숙향전」, 『조선후기의 대중소설』, 태학사, 1995.
장홍재, 「숙향전」, 『고전소설연구』, 화경고전문학연구회편, 일지사, 1993.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_____,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1994.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채희윤, 「숙향전 연구」, 『한국 서사문학의 통사적 고찰』, 푸른사상사, 2002.
황패강, 「숙향전의 구조와 동양적 예정론」, 『고전소설의 이해』, 문학과 비평사, 1991.
마이클 J. 툴란 저, 김병욱 · 오연희 공역, 『서사론』, 형설출판사, 1995.

3. 논문

권선미, 「숙향전에 나타난 세계관」,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2.
김민숙, 「숙향전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2.

김응환, 「숙향전의 도교사상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83.
민경록, 「숙향전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
_____, 「숙향전 배경설화 연구」, 『문화전통론집』6,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8.
민영숙, 「숙향전 연구」,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8.
박병완, 「숙향전의 구조와 작가의식」, 『국어국문학』115, 국어국문학회, 1995.
박여범, 「숙향전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91.
서연희, 「숙향전의 서사구조와 그 의미」, 『서강어문』5, 서강어문학회, 1986.
성현경, 「숙향전 연구」, 『동아연구』27, 서강대학교 동아연구회, 1993.
신재홍, 「숙향전의 미적 특질」, 『고소설연구논총』 다곡 이수봉박사 정년기념, 경인문화사, 1994.
심치열, 「숙향전 연구」, 『한국언어문학』38, 한국언어문학회, 1996.
양혜란, 「숙향전에 나타난 서사기법으로서의 시간문제」, 『우리어문학연구』3,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1991.
윤경희, 「이대본 숙향전에 나타난 조명론적 세계관」, 『한국고전연구』창간호, 한국고전연구학회, 1995.
이상구, 「숙향전의 현실적 성격」, 『고전문학연구』6,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_____, 「숙향전의 문헌적 계보와 현실적 성격」,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4.
이상일, 「변신설화의 유형분석과 원초사유」, 『대동문화연구』8,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71.
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과정 시론」, 『고전문학연구』1,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1.
장홍재, 「숙향전에 나타난 거북의 보은사상」, 『국어국문학』55-57합병호, 국어국문학회, 1972.
조용호,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전문학연구』7,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2.
차충환, 「숙향전의 구조와 의미」, 『고소설연구』4, 한국고소설학회, 1998.
_____, 「숙향전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9.